이미숙, 젊음, 2016, 72.7×72.7cm, oil on canvas

성남미술은행SNAB은 성남문화재단이 미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아트 셰어링 프로그램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역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구입, 이를 다시 지역기업과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작가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보유한 회화,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은 작품가 기준 0.5~1.0%(월 기준)의 대여료로 일정 기간 소장 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의 대여 수입은 성남시 관내 문화복지기관 무상 대여 등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소중히 쓰일 예정입니다.

성남미술은행 www.snab.or.kr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ISSN 2383-8361

아트 뉴

VOL.143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COVER STORY
2019 Matinée Concert
마티네 콘서트

PREVIEW
연극만원 〈진실×거짓〉

INTERVIEW
지휘자 차웅

ACADEMY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현대무용-I can dance!〉

02+03
2019

ART+PLACE
아트 시티를 가다:
밀라노

MATINÉE CONCERT

한국지역난방공사 와 함께하는

Matinée Concert

2019

마티네콘서트 차이콥스키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배우 김석훈이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2019년 3월~12월(총10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예매 1544-8117

성남문화재단

www.snart.or.kr

14년 간 오고 간 1100여통의 편지, 그 속에 피어난 한 예술가의 고독한 음악세계

마티네콘서트 차이콥스키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3.21
위대한 낭만주의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이병욱, 피아노 이진상

차이콥스키 /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 서곡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1번 B♭단조, Op.23
슈만 / 교향곡 2번 C장조, Op.61

4.18
플로렌스의 추억
코리안 솔로이스츠

헨델-할보르센 / 파사칼리아
멘델스존 / 현악 팔중주 E♭장조, Op.20
차이콥스키 / 플로렌스의 추억, Op.70

5.16
마지막 팡파레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 차옹, 트럼펫 성재창

차이콥스키 /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3막 중 폴로네이즈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E♭장조
차이콥스키 / 교향곡 5번 E단조, Op.64

6.20
안단테 칸타빌레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김봄소리

차이콥스키 / 안단테 칸타빌레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47
라벨 / 쿠프랭의 무덤, M.68

7.18
한 여름날의 환상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홍석원, 소프라노 서선영

멘델스존 / <한 여름 밤의 꿈> 중 결혼행진곡
차이콥스키 /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1막 2장 중 '타티아나 편지 장면'
슈트라우스 / <4개의 마지막 노래> 중 III. 잠들 무렵
차이콥스키 / 교향곡 1번 G단조 Op. 13, '겨울날의 환상'

8.22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콰르텟K, 피아노 조재혁

차이콥스키 / <사계, Op.37a> 중 8월 추수
드보르작 / 피아노 오중주 2번 A장조, Op.81
차이콥스키 / 피아노 트리오 A단조, Op.50, '어느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진행 김석훈

9.19
보헤미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이민형, 첼로 심준호

차이콥스키 / <사계, Op.37a> 중 9월 사냥
차이콥스키 /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33
드보르작 / 교향곡 9번 E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

10.17
비르투오조의 인사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 서진, 바이올린 양인모

글린카 /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
엘가 / 수수께끼 변주곡, Op.36

11.21
마력의 비올, 바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 정치용, 바순 최영진

차이콥스키 / 슬라브 행진곡, Op.31
모차르트 / 바순 협주곡 B플랫장조, K.191
차이콥스키 / 교향곡 4번 F단조, Op.36

12.19
환상 동화
코리아쿱오케스트라, 지휘 차옹

차이콥스키 / <백조의 호수> 모음곡, Op.20a
차이콥스키 /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Op.71a

www.snart.or.kr

과거와 현재의 공존

By 카타르 국립 도서관

Qatar National Library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는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사회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성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사람들은 책의 가치에 의구심을 품고
도서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설립한
카타르 국립 도서관Qatar National Library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카타르 국립 도서관은 4,200m²의 방대한 크기와
건물 모서리가 들려 올라간 기하학적인 형태로
카타르의 명소로 여겨진다.
100만 권이 넘는 장서와 천 년이 넘은 중동 고서적,
이슬람의 문화 유산이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중앙에는 유물 컬렉션을 포함하고 있다.
이곳에서 책은 역사 그 자체이며, 그 형태에 따라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유추해볼 수도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를 만나고, 마주하며, 만들어갈 것이다.

©Qatar National Library

글 **고민주** 객원기자
사진 제공 **카타르 국립 박물관**

©Image Credit to Sorin Furcoi

CONTENTS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VOL.143
FEBRUARY & MARCH 2019

COVER STORY

08 Preview
2019 마티네 콘서트
2019 Matinée Concert

12 Zoom In
차이콥스키의 삶과 음악
Tchaikovsky's Life and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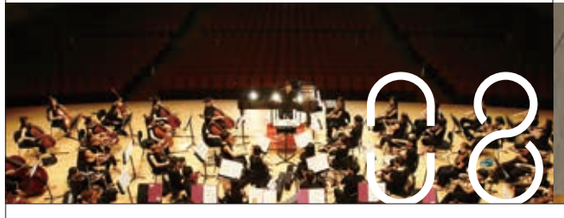
16 Essay
내 인생의 차이콥스키
Tchaikovsky in M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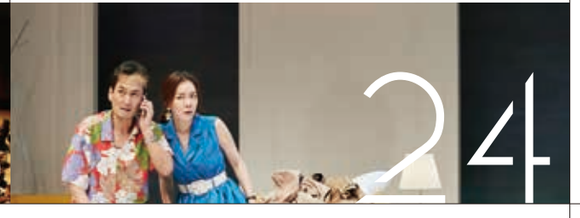
VIEW

20 Interview
지휘자 차웅
Conductor Cha Woong

24 Preview
연극만원 〈진실×거짓〉
Theatre Full House <La Vérité×Le Mensonge>

26 Preview
〈신소장품 2018〉展
<New Acquisitions[2018]>





FEATURE

30 Cinema Classic
영화 〈프라하의 봄〉과 야나체크
Film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 Janáček

32 Book
이달의 책
Book of the Month

34 Art+Place
아트 시티를 가다: 밀라노
Visit to the City of Art: Milan

42 Art+Trend
트렌드 키워드 '뉴트로'
Trend Keyword 'New-tro'

44 Art+Space
보이지 않는 골목들
Discovering Hidden Alleys

49 Book in Book
벤치에서…
At the bench…

INSIDE SEONGNAM

58 Zoom In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Independence Fighter Webtoon Project

60 Interview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 박양빈
Resident Artist of Sinheung Creative Space of Public Art, Yangbin Park

64 Zoom In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Village Community Support Project: Open Space Block's

66 Academy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현대무용–I can dance!〉
Contemporary Dance Class <I can dance!>

69 SNART News

74 Calendar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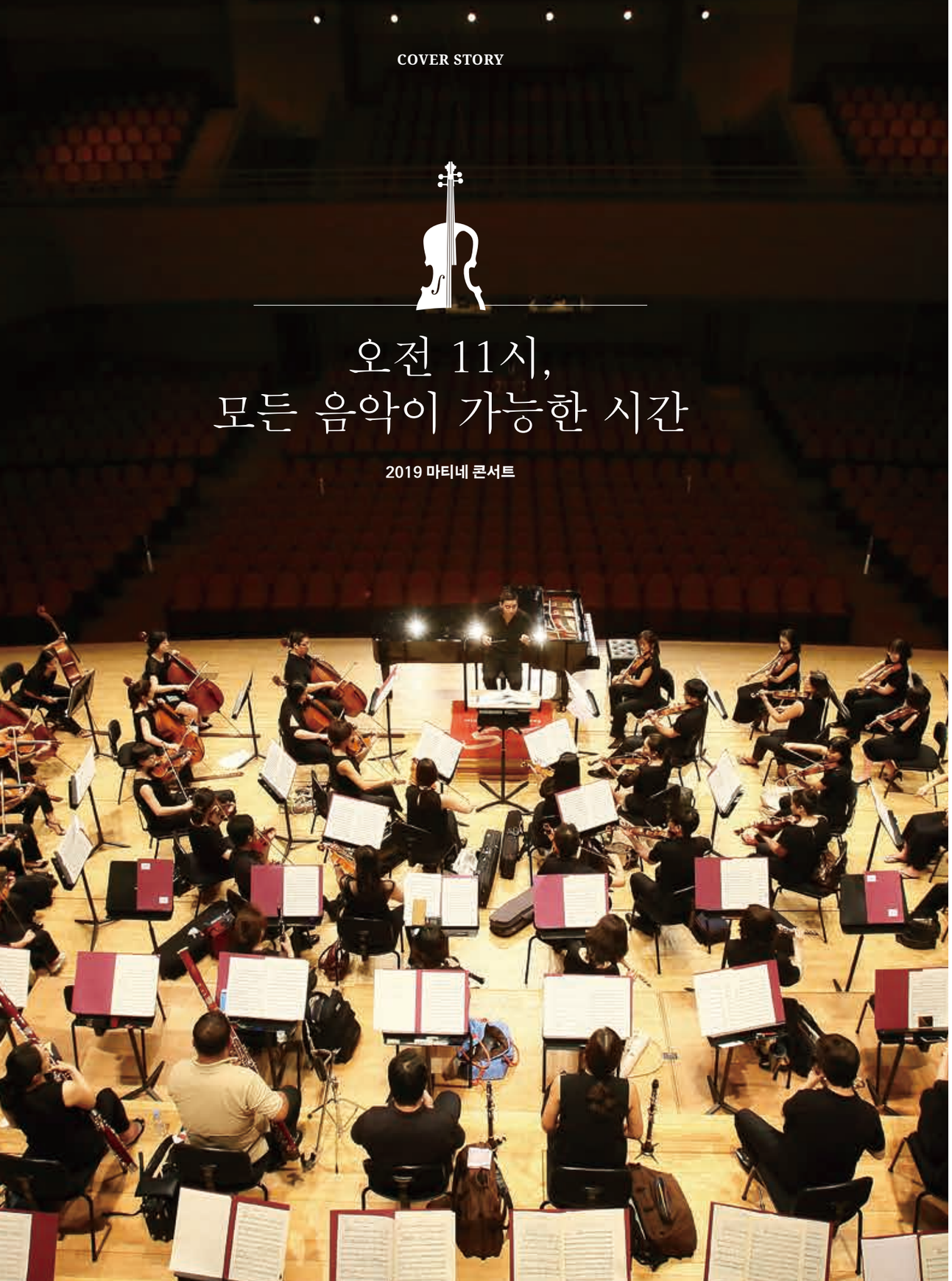
격월간 아트뷰 2019년 02+03월호 **통권** 143호(비매품) 2019년 01월 31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은수미 **발행인** 박명숙 **편집장** 강기수 **기획** 남소연 nam@snart.or.kr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홍보미디어부 **전화** 031-783-8024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트뷰〉의 일부 기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원 파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남미디어센터 시민라디오제작단 최윤진 님의 목소리 기부와 편집으로 제작되는 음원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정오를 앞둔 시간, 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프로그램, 간단한 브런치와 커피. 십여 년 전부터 전국 각 공연장마다 자리 잡은 오전 마티네 콘서트의 풍경이다. 가벼운 소품, 익숙한 작품의 발췌 악장을 연주하던 입문자용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들 콘서트들은 이제는 각 공연장의 특성에 따라 저녁 음악회 이상의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는 음악에 대한 참신한 기획과 진지한 접근으로 매해 오전 음악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온 대표 브랜드로 꼽힌다. 2019년 목요일 아침, 차이콥스키의 삶과 음악을 탐구할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를 미리 살펴본다.

Matinée Concert

Preview
2019 마티네 콘서트
Zoom In
차이콥스키의 삶과 음악
Essay
내 인생의 차이콥스키

©최재우



오전 11시,
모든 음악이 가능한 시간

2019 마티네 콘서트

국내 오케스트라 중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슈베르트 교향곡 전곡 사이클, 브람스 교향곡 전곡과 슈만의 교향곡 전곡, 바그너와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윤이상…. 모두 어느 오케스트라의 연간 일정이 아닌, 최근 5년간 성남아트센터의 오전 마티네 콘서트에서 만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적당히 가볍고 말랑한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오전 콘서트의 미덕이라는 선입견은 적어도 성남에서는 접어두는 것이 좋다. 관객도, 연주자도 상상 그 이상의 아카데믹한 열정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을 탐구하는 곳, 바로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다.

"오전 음악회는 쉽고, 편하고, 대중적이다"라는 공식화된 선입견을 깬 것은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다. 2006년 첫 시작 이후 벌써 14년째 이어져오는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는 그동안 다양한 기획과 새로운 시도로 오전 음악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귀에 익은 입문자용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대신 특정 작곡가를 집중 탐구하고, 저녁 콘서트 이상의 진중한 선곡과 실험적인 시도로 과감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충성도 높은 관객들의 신뢰, 그리고 음악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유연한 태도가 있기에 가능했다. 마티네 콘서트의 주 관객층인 중장년층 여성들이 '적당히 듣기 쉽고 편안한 음악'을 좋아하리라는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마티네를 찾아온 이들 관객은 '편한 음악'이 아닌, '사유하는 음악'을 찾는 아카데믹한 음악 애호가들이다. 조금은 낯설더라도 새로움에 대한 탐구를 환영하는 관객들, '이 곡은 오전에는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대신 전 악장에 에너지를 쏟아낼 줄 아는 연주자들은 1년의 마티네가 지나는 동안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그다음 해, 또 다른 음악적 도전이 가능한 든든한 토양이 한 겹 더 갖춰지는 것이다.

차이콥스키를 만나다

2019년 마티네 콘서트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총 열 차례 관객을 만난다. 올해의 마티네가 선택한 작곡가는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차이콥스키. 드라마틱한 박력과 짙은 감성의 멜랑콜리가 공존하는 그의 음악은 오랫동안 시공을 초월해 사랑받으며 한국 관객들의 마음 역시 사로잡아왔다. 교향곡과 협주곡, 실내악, 오페라와 발레 음악까지 전방위적인 걸작을 남겼던 차이콥스키의 음악 세계, 그리고 그 걸작의 탄생마다 자리했던 작곡가의 삶의 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3월 21일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이병욱이 '위대한 낭만주의자' 차이콥스키의 등장을 알린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 서곡을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협연하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슈만의 교향곡 2번이 커플링된다.

4월 18일은 코리안 솔로이스츠의 '플로렌스의 추억'이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대모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을 주축으로 구성된 실내악단 코리안 솔로이스츠가 헨델·할보르센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 멘델스존의 〈현악 팔중주 E♭ 장조 Op. 20〉,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을 들려준다.

5월 16일의 '마지막 팡파레'는 과천시립교향악단과 지휘자 차웅, 트럼피터 성재창이 함께한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3막 중 '폴로네이즈',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 장조, 차이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사진 **최재우**

5년째 마티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배우 김석훈

콥스키 교향곡 5번을 준비했다. 2017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한 젊은 지휘자 차웅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티네 무대에 선다.

6월 20일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지휘자 최수열의 '안단테 칸타빌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 1번 2악장을 첼로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안단테 칸타빌레〉,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벨 〈쿠프랭의 무덤〉이 이어진다. 비에냐프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를 잇고 있는 김봄소리가 협연을 맡았다.

7월 18일 '한여름날의 환상'은 홍석원이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소프라노 서선영의 차례다.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중 '결혼행진곡'을 시작으로,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1막 2장 중 '타티아나의 편지' 장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 제 3곡 '잠들 무렵', 차이콥스키 교향곡 1번 '겨울날의 환상'을 들려준다.

8월 22일은 콰르텟 K,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조합이다.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에 등장하는 요제프 크네히트Josef Knecht에서 이름을 가져온 콰르텟 K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제 2 바이올린 수석 임가진과 부수석 김덕우, 전 첼로 수석 주연선과 비올리스트

이수민으로 이뤄진 앙상블이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8월 '추수'와 〈피아노 삼중주 A단조 Op. 50〉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드보르자크 〈피아노 오중주 2번 A장조 Op. 81〉로 밀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9일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이민형의 '보헤미안'이다. 차이콥스키 〈사계〉 중 9월 '사냥',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준비했다.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귀국, 서울시향 첼로 수석이자 독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심준호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10월 17일은 과천시립교향악단과 지휘자 서진,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차례다. '비르투오소의 인사'라는 주제로 글린카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들려준다. 2015년, 파가니니 바이올린 콩쿠르가 9년 만에 배출한 우승자이자 한국인 최초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양인모는 지난해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 연주 리사이틀로 놀라운 비르투오시티를 증명한 데 이어, 이 실황을 DG에서 데뷔 음반으로 발매하며 화제를 모았다. '인모니니'라는 애칭으로 인기몰이 중인 양인모의 차이콥스키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 순서다.

11월 21일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정치용의 '마력의 비음, 바순'이다.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모차르트의 〈바순 협주곡B♭ 장조 K191〉,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들려준다. 일본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명문 도쿄 필하모닉의 바순 수석이자 최초의 한국인 수석인 최영진이 협연한다.

마지막 열 번째, 12월 19일의 '환상동화'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이다. 코리아쿱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차웅이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으로 한겨울의 눈부신 설경,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펼쳐 보인다. 5년째 마티네 콘서트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배우 김석훈이 올해에도 클래식 음악과 마티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바탕으로, 관객과 연주자 사이를 이어주는 사려 깊은 커뮤니케이터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의 삶이 곧 음악이었다

차이콥스키의 삶과 음악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차이콥스키는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러시아 고유의 요소를 서유럽적인 형식에 녹여낸 그의 '절충적 음악 어법'은 당대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가들로부터 공격받는 빌미가 되기도 했으나, 실은 그의 음악이 국적을 막론하고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된 주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의 타고난 재능과 기질, 인생 역정에서 찾아야 할 텐데, 삶 속 경험과 그로 인한 감정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자신의 작품에 투영한 작곡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진실의 음악'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는 1840년 5월 7일 우랄 산맥 서부의 광산촌 보트킨스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일랴 페트로비치는 군인 집안 출신의 광산 기사(감독관)였고, 어머니 알렉산드라 안드레예브나는 프랑스계로 키가 크고 매력적이면서 지극히 내성적인 성품의 여인이었다. 일곱 아이를 둔 그들의 가정 환경은 상당히 유복한 편이었으나, 차이콥스키가 여덟 살 때 아버지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모스크바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 처한 소년 차이콥스키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향수에 빠져들었다. 이때부터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괴로운 현실을 외면하고 음악으로 도피해 위로와 만족을 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차이콥스키의 어머니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구사했고 피아노와 하프를 능숙하게 다루었으며 노래도 꽤 잘 불렀다. 어린 차이콥스키는 그런 어머니의 음악성은 물론 섬세하며 예민한 성격까지 물려받았다. 더구나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이 무척 강한 아이여서, 열 살 때 법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며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오열하며 몸부림쳤다고 한다. 열네 살 때는 아직 마흔한 살이었던 어머니가 콜레라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가슴 저미는 이별을 겪어야 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도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뒤늦은 출발

차이콥스키가 음악계에 투신한 시기는 꽤나 늦은 편이다. 법률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물론 그 자신도 음악가가 되리란 생각은 미처 못 했던 것 같고, 졸업 후에는 법무부에 취직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음악에 대한 애착은 나날이 깊어졌고, 안정적이되 무료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스물두 살이 되자 당시 막 설립된 '러시아 음악 협회'의 강좌에 등록해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이듬해 이 협회를 기반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이 설립되자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정식 학생으로 등록했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에 풍부한 소양까지 갖추었던 그는 대번에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 후에는 곧바로 새로 설립된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임용되었다.

차이콥스키가 음악가로서 첫걸음을 떼던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제도권 음악 교육 시스템의 정착을 주도했던 루빈시테인(루빈슈타인) 형제. 당시 러시아 음악계는 크게 두 파벌로 갈렸는데, 하나는 아마추어리즘을 기반으로 보다 순수한 민족주의 음악을 추구하는 '국민악파' 진영, 다른 하나는 선진적인 서유럽 시스템을 도입해 한

글 **황장원** 음악칼럼니스트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이자 전문 강사로 예술의전당, 서울시립교향악단, 성남아트센터, 네이버 등 다양한 매체와 방송, 주요 공연장에서 기고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바그너협회 사무간사와 무지크바움 실장을 역임했다.
그림 **조성헌**

층 체계화된 교육과 수준 높은 음악 기법을 추구했던 '서구파' 진영이었다. 루빈시테인 형제는 후자를 선도했던 인물들로, 형인 안톤 루빈시테인Anton Grigorievich Rubinshtein은 서유럽에까지 명성을 떨친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였고, 동생 니콜라이 역시 뛰어난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교육자로 러시아 안에서 만큼은 형 못지않은 명성을 누렸던 음악가였다. 안톤은 피아니스트로서 획득한 부와 명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음악 협회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설립을 주도했고, 니콜라이는 모스크바 음악원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차이콥스키를 교수로 스카우트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특히 니콜라이는 차이콥스키가 낯선 모스크바 음악계와 사교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마흔여섯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파리에서 객사할 때까지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로 지냈다. 차이콥스키의 초기작 여러 곡이 그에게 헌정되거나 그에 의해 초연되었고, 특히 유명한 〈피아노 삼중주 A단조 Op. 50〉은 1881년에 세상을 떠난 그를 추모하는 뜻에서 쓰인 작품이다.

음악원 출신인 차이콥스키는 기본적으로 서구파에 속했지만 국민악파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5인조의 리더 발라키레프와는 1867년 처음 만난 이후 꾸준히 교류하며 지냈는데, 그의 '최초의 걸작'으로 꼽히는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도 발라키레프의 권유와 초안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차이콥스키가 한때 약혼까지 했던 벨기에 여가수 데지레 아르토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추억이 투영된 이 작품은 경건하면서도 인간미 가득한 종교성, 격렬하고 거대하며 비극적인 열정, 지극히 감미로우면서 애틋한 서정성 등 청년 차이콥스키의 순수한 창작력을 고루 드러낸 수작이다.

경력의 시작과 결정적 사건

차이콥스키의 작곡 활동은 모스크바 음악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초기작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교향곡들인데, '겨울날의 백일몽(환상)'이라는 부제의 교향곡 1번 G단조[1866]는 러시아의 광활한 국토와 대자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민중에 대한 그의 애정이 빚어낸 가작이고, '작은 러시아'라는 별명의 교향곡 2번 C단조[1872]는 우크라이나 지방의 민요 선율을 교향곡 구조 속에 녹여내 뜨거운 민족정신을 분출한 작품이다. 오스트롭스키의 동명 희곡에 기초한 〈보예보다(지방장관)〉[1868]를 필두로 오페라에도 열성을 보였고, 유명한 '안단테 칸타빌레'가 포함된 〈현악 사중주 1번 D장조〉를 비롯한 실내악곡도 선보였다.

차이콥스키의 경력은 5악장 구성의 교향곡 3번 D장조가 나온 1875년 무렵을 기점으로 일대 전환을 맞이한다. 특히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1번[1875]은 그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주었다. 이 곡은 완성 후 니콜라이 루빈시테인에게 보여주었다가 혹평을 들어 차이콥스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독일의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한스 폰 뷜로의 연주로 미국 보스턴에서 초연되었다. 덕분에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밖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국내외의 활발한 활동 속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 음악 작곡가'의 시발점이었던 〈백조의 호수〉[1876] 역시 이 무렵 세상에 나왔다.

1877년에는 차이콥스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다. 음악원 제자였던 안토니나 밀류코바의 열렬한 구애에 못 이긴 척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어쩌면 그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치료'하거나, 적당히 은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솔한 결정은 치명적인 파국과 절망을 불러왔고, 결국 그는 신혼집을 뛰쳐나와 국외로 도피했다. 이 시기에 차이콥스키는 교향곡 4번 F단조[1878]와 걸작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1878]을 작곡했는데, 두 작품에 안토니나의 구애에서 파경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내적 동요 및 갈등이 암암리에 투영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특히 교향곡 4번은 그의 창작 후반기의 핵심인 '운명과의 투쟁'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었는데, 그 피날레에서 작품 속 주인공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도피해 민중의 축제에 심신을 의탁하는 길을 선택한다.

은밀한 후원자와 전성기, 비극적 말년

이 대목에서 '은밀한 후원자' 폰 메크 부인이 등장한다. 교향곡 4번을 헌정받은 나데즈다 폰 메크 부인은 부유한 사업가이자 예술 애호가로, 사별한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철도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생활 면에서는 은둔자와도 같은 삶을 영위하던 여인이었다. 차이콥스키와 폰 메크 부인의 '밀회'는 1876년에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은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으나 점차 연인들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감정적 언어들로 채워져갔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후원을 약속하면서 '절대 서로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인데, 실제로 두 사람은 '우연히' 두 번 정도 마주쳤을 뿐이고 그나마도 서로 모른 체하거나 간단한 목례 정도만 하고 지나쳤다고 한다. 여하튼 차이콥스키가 국외에 머물며 고충을 토로하자 폰 메크 부인은 거액의 연금 지급을 약속했고, 차이콥스키는 돈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도피처인 스위스에 머무는 동안 차이콥스키는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1878]를 썼는데, 이 무렵부터 그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그는 폰 메크 부인의 후원에 힘입어 모스크바 음악원에 사표를 냈고, 이후 몇 년 동안은 유럽을 여행하거나 러시아의 농촌에 머물며 시간을 보냈다.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탈리아 기상곡〉[1880], 〈현악 세레나데〉[1881], 4개의 관현악 모음곡 〈만프레드 교향곡〉[1885] 등의 명작들이 탄생했고,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갔다. 또한 그의 드문 종교곡인 〈성 크리소스톰의 전례가〉[1878], 숨은 가작인 피아노 협주곡 2번[1879], 러시아 박람회를 겨냥한 축전 서곡 〈1812년〉[1880] 등이 국가 행사에서 연주되어 황실의 주목을 끌었고, 차르가 배석한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황실 극장에서 상연된 〈예브게니 오네긴〉이 성공을 거둔 1884년 이후에는 '황실의 후원을 받는 예술가'의 반열에 올랐다. 오늘날 그의 교향곡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 5번 E단조[1888]는 그러한 전성기의 표상과도 같은 작품이다.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말년은 뜻밖의 급속한 내리막길이었다. 1890년에 폰 메크 부인이 돌연 후원금과 서신 왕래를 끊겠다고 선언하자 그는 회복 불가능한 충격에 빠졌다. 1891년에는 카네기홀 개관 기념 공연 지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발레 음악 〈잠자는 숲 속의 미녀〉[1889], 현악 앙상블을 위한 〈플로렌스의 추억〉[1890],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1890],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1892]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경력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마침내 1893년 11월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의미심장한 마지막 작품인 교향곡 6번 '비창'[1893]의 초연을 직접 지휘한 지 아흐레 만에 그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만다. 사인은 당시에는 콜레라로 알려졌으나 이내 자살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차이콥스키라는 입방체를 추억하며

내 인생의 차이콥스키

진지한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세계는 이른바 BMW, 즉 브루크너, 말러, 바그너 애호가들이 선점했다. 거기서 차이콥스키는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에 가까웠다. 한눈에 쉽게 파악되는 구조, 진한 선율미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오래, 깊게 파고들 여지가 소위 BMW보다 못하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듣고 또 듣는 음악 애호가의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작곡가와 그렇지 못한 작곡가들을 분류하는 게 가능해진다.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전자의 작곡가로는 모차르트와 차이콥스키가 있다. 해가 갈수록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차이콥스키는 평생 친구로 삼을 만한 작곡가다. 차이콥스키는 이를테면 다양하게 빛을 반사하는 입방체다. 그동안 차이콥스키를 들으며 느꼈던 감상을 열거하며 거장의 작품들을 다시 들어보려 한다.

처음에 차이콥스키는 매정한 눈보라로 다가왔다. 교향곡 4번 1악장의 포문을 여는 호른과 바순의 최강주는 차라리 절규였다. 혹한의 눈보라처럼 종잡을 수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인간의 비애가 악기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교향곡 6번 '비창' 1악장에서 촛불 밝힌 밤의 체념과 슬픔에 이어지는 격렬한 공포와 번뇌는 또 어떠한가. 안온한 바다가 갑자기 쓰나미로 변하듯 노도와 같은 분노가 쏟아진다. 하이든의 교향곡 '놀람' 못지않은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 4악장의 심장 박동 소리가 멈추면 그대로 생명체가 고개를 떨구고 스러져간다. 죽음의 추체험이요 하나의 세계가 멸망하는 대목이다. 이토록 지독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곡이 또 있을까.

차이콥스키는 웅장한 대포 소리다. 〈1812년 서곡〉의 말미에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가 포탄에 맞은 듯 흩어지며 오케스트라 역사상 가장 강렬한 폭음이 귓전을 울린다. 묵직하고 웅장한 승리의 피날레는 귀로 듣는 불꽃놀이다. 슬라브 행진곡에서 밀려오는 장엄한 에너지는 작곡가의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로새긴다.

차이콥스키는 쓸쓸함이요 고독이다. 발산하는 외향적인 곡들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수렴하는 작품을 들을 때 치명적인 외로움과 적적함은 가슴속으로 스며든다. 피아노곡인 〈사계Seasons〉가 그렇다. 6월 '뱃노래'를 들으면 아무도 없는 호숫가나 적막한 해변의 고독이 떠오른다. 10월 '가을의 노래'는 떨어지는 낙엽이 바람에 날아 강물 위에 떠가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운 현대인들의 착잡한 공감은 더욱 커진다.

차이콥스키는 우울이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감상적인 왈츠'나 첼로로 연주하는 '녹턴'은 다 같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한편으로 듣는 이에게 위로의 손을 내민다. 그 손은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한다. 우울한 현대인에게 차이콥스키는 치유제다. 〈우울한 세레나데 Op. 26〉은 터벅터벅 걷는 슬픔의 산책길이다. 가끔씩 알알이 맺히는 한의 정서에 햇빛이 비치며 보는 이를 눈부시게 만든다.

차이콥스키는 찬란한 슬픔이다. 교향곡 1번 '겨울날의 꿈'의 2악장은 슬프면서 감미롭고 웅장하면서도 처연하다.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중 그랑 파드되grand pas de duex는 가장 간명하게 다가오는 차이콥스키 음악의 결정체다. 단순한 건반 위의 하강 음형이 인간의 희로애락을 모두 표현하는 기적적인 작품이다. 첼로가 리드하는 부드러운 중저역에 천상의 하프 소리가 녹아든다. 이는 점차 고조되며 작품을 형언하기 힘든 백열적인 상태로 몰고 간다. 생전의 차이콥스키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을 여행했다. 가장 러시아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차이콥스키 음악의 범용성을 단순한 선율이 여실히 보여준다.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가버린 빛나던 청춘의 날을 회상하는 렌스키의 아리아는 그대로 찬란한 슬픔에 적셨다 꺼낸 듯 물이 뚝뚝 떨어진다. 허망하게 스러져갈 하나의 세계를 향해 부르는 만가는 처연하기만 하다.

차이콥스키는 마음을 어루만진다. 현악 사중주 1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는 첼로와 현을 위한 음악으로도 편곡됐다. 어쩌면 음색이 그렇게 관대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지! 듣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톨스토이가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납득이 간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삼중주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로 글을 마치려 한다. 첫 악장에서 조용히 울리는 피아노 분산 화음을 타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연주하는 슬픈 선율. 차이콥스키 특유의 우울함에 탐미적인 우아함과 비가적인 분위기가 곁들여진다. 차이콥스키가 추억했던 '위대한 예술가'는 니콜라이 루빈시테인이었다. 차이콥스키는 모스크바 음악원장이었던 루빈시테인에게 피아노 협주곡 1번 초연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있고, 3년 뒤에 루빈시테인은 곡의 진가를 못 알아봤다며 사과했다. 루빈시테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차이콥스키는 이 아름다운 작품을 그에게 바쳤다. 오늘은 니콜라이 루빈시테인이 아닌 '위대한 예술가' 차이콥스키를 추억하며 듣고 싶다.

글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음악회를 보고 음반을 듣고 글을 쓴다.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토요일 코너 '클래식 인물 탐구 요즘 N 이 사람'에 출연하고, 세종예술아카데미 '정오의 클래식'을 진행한다.
그림 **조성헌**

20 **Interview**
지휘자 차웅

24 **Preview**
연극만원 〈진실×거짓〉

26 **Preview**
〈신소장품 2018〉展

VIEW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차웅

묵묵히, 그러나 큰 걸음으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 스타 연주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생소한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지휘자로 시선을 돌리면 그 수는 지극히 적다. 2017년 이탈리아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한 차웅의 존재는 그래서 더 반갑다.

지난해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무대에서 처음 성남 관객을 만나셨지요. 올해도 두 차례 마티네 콘서트를 지휘하시게 되었는데요.

좋은 기획의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음악회에서 작곡가 한 명을 집중 탐구한다는 게 해외에서도 흔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인기 있는 작품 위주인데, 이런 식의 진지한 접근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장점이 크죠. 아침에 차이콥스키 교향곡을 듣는다는 건 분명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2017년 이탈리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하시면서 국내 음악계의 차세대 지휘자로 꼽히고 계시죠. 올해부터 베를린 필을 이끌게 된 키릴 페트렌코도 이 대회의 입상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기리기 위해 1985년 탄생한 지휘 콩쿠르입니다. 3년마다 열리다 주정부 재정 악화로 중단됐지만, 2017년 토스카니니 탄생 150주년이자 서거 60주년을 맞이해 7년 만에 다시 재개됐죠. 34개국, 150명이 넘는 참가자 중 12명을 선발해 6월에 예선을 치르고 10월에 결선이 진행됐는데, 준비할 곡이 많아 쉽지 않았어요. 그전에 여러 콩쿠르에서 많이 탈락한 터라 큰 기대도 없었고요. 3월에 주최 측에서 메일이 왔는데, 기대 없이 클릭했다 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동양인 이름으론 유일했죠.

콩쿠르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5월 예선에서는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번호를 뽑았는데 제가 11번이었어요. 예선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볼 수도 없고, 그저 제 순서만 기다리며 3일이 지났죠. 마지막 날 연주를 마친 뒤 단원들 반응이 좋아서 '혹시'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어요.
유학을 떠난 이후 보통 여름에는 한국에 들르기도 했는데, 2017년에는 예선이 끝난 뒤 10월 결선까지 계속 유럽에서 공부했어요. 과제곡인 베토벤 전원 교향곡을 공부할 때는 오스트리아 곳곳을 돌아보며 특히 잘츠캄머구트에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고, 성당에서 버르토크의 비올라 협주곡을 공부하는 식으로 즐기려 했죠. 결선에서는 결국 이탈리아 출전자와 함께 1위 없는 공동 2위에 입상했는데, 아쉬움도 컸지만 정말 큰 경험이 됐어요.

젊은 신인 지휘자이다 보니 오케스트라와의 소통이 쉽지만은 않을 듯해요.

첫 연습에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해요. 먼저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간단하게라도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일단 음악 용어에 이탈리아어가 많으니 그것만 정확하게 전달해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유럽에서 객원 지휘를 할 때는 무조건 오케스트라 도서실부터 가서 그동안 어떤 스타일로 연주했는지 악보를 살펴요. 한정된 리허설 시간 중 이 과정이 큰 도움이 되죠. 자국 작곡가의 경우 먼저 배우고 맞춘다는 자세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베르디 서곡을 연주할 때는 셈여림 하나하나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식이죠.

한국 독주자들의 활약은 대단하지만 지휘자는 독주자에 비해 무대에 설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지휘자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그만큼의 풍부한 음악적 토양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콩쿠르 이후에는 좀 어떠신가요?

독주자는 혼자 연주할 수 있지만 지휘자는 악단 없이는 어떤 무대도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많지 않은 무대는 극소수에게 한정되어 있고, 그 기회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생 시절에도 모든 지휘과 학생이 오케스트라 실습을 경험할 순 없거든요. 마스터클래스 참가도 영상을 제출해서 선발되어야 가능하죠. 경험 없는 지휘자에게 악단을 맡길 수 없으니, 경력이 없어서 경력을 쌓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토스카니니 콩쿠르도 공동 2위이다 보니 연주 기회를 공동 입상자와 함께 배분해야 해서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콩쿠르 이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퇴근길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공익 공연 지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조금씩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죠.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지역 오케스트라와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젊은 지휘자를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지휘자를 육성하고 음악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생기리라 생각해요.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 음대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지요. 유럽에 머물 때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음악에도 긴장-이완이 있는데, 동양인 학생들은 긴장만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이완'을 위해 노력해요. 규칙적으로 공부하되 틈틈이 저만의 맛집도 찾고, 와인과 파티도 즐기고, 좋아하는 요리도 만들면서 기분 전환을 하죠.

5월 16일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과천시립교향악단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하시게 됩니다. 교향곡 5번, 또 차이콥스키 음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릴 적에 피에르 몽퇴가 지휘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6번 테이프를 열심히 듣던 기억이 아직 생생해요. 제 삶의 모토가 '긍정적으로 살자'인데,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에 그 느낌이 있어요. 베토벤의 "고난을 헤치고 환희로!*Durch Leid zur Freude!*"를 연상시키는 구성이죠. E단조에서 E장조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승화되는 드라마가 대단히 아름다워요.

사실 차이콥스키의 작품 구조는 단순하거든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웃음). 어떤 면에서는 대중음악 느낌이기도 한데, 그 안에 극적인 드라마가 있죠. 교향곡 6번은 마치 차이콥스키의 자서전이 응축된 느낌입니다. 4악장에서 계속해서 하강하는 선율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억의 파노라마가 스쳐가는 듯하죠. 악보에 적힌 '안단테 주스토andante giusto'가 단순히 느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있는 곡이 6번이라고 생각해요.

01

음악은 모두와 나누는 것이다

지휘자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릴 적 〈열린 음악회〉를 보고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에 푹 빠졌어요. 지휘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시작된 거죠.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음악이라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학급 문집이 아직 집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내가 아끼는 물건은 피아노와 플루트. 20년 뒤에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을 것이다."(웃음) 일반 입시를 준비하다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결국 한예종 음악학과에 입학했는데, 우연히 학교에서 4학년으로 복학한 최수열 지휘자와 마주쳐서 지휘과는 어떤지 여쭤보니 "괜찮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다시 준비해서 지휘과에 입학했죠.

외부 요인 외에 스스로 갖출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예종 시절 정치용 선생님께서 항상 "막내는 지휘 대신 오케스트라가 돌아가는 모습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도 학교에서 악보계를 2년 했는데, 당시 모차르트 250주년이라 엄청 두꺼운 베렌라이터 판본들을 수없이 복사하며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돌아보니 그게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정말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죠. 매 순간이 과제라 생각하고 배워야 스스로의 자산이 돼요. 그 순간을 지혜롭지 못하게 스쳐버린다면 훗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뒤떨어지겠죠.

여러 지휘 거장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셨는데요, 그중 인상적인 기억이 있으셨는지요.

2015년 겨울에 미시건대 지휘과 교수 케네스 키슬러Kenneth Kiesler의 마스터클래스에서 엄청 지적을 받았어요. 엘름 챙Elim Chan이라는 86년생 여성 지휘자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지휘봉 잡는 법 하나부터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스타일이었죠. 제 해석대로 연주했더니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지켜본 한 핀란드 청강생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요리를 만들듯이 여기서 배운 부분, 저기서 배운 부분을 잘 섞어서 네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저도 태도가 달라졌고, 키슬러 교수도 자기 조언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법도 능력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02 ©김관수

01
2017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 시상식에서

02
서울시향의
〈퇴근길 토크 콘서트〉
리허설 현장

핀란드 지휘자들의 대부, 요르마 파눌라Jorma Panula의 마스터클래스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에사페카 살로넨, 유카페카 사라스테, 오스모 벤스케까지, 정말 유명한 지휘자를 많이 키워내신 거장이잖아요? 아흔 살에 가까우신데 존재감이 대단하세요. 일단 학생이 알아서 하도록 지켜보시는 스타일이시죠. 아주 결정적으로 틀린 경우에만, 그것도 그 순간 지적하는 대신 오후에 비디오 세션을 진행할 때 코멘트해주시는 식이에요. "몇 분 몇 초쯤에 네가 잘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단순하지만 마음에 와 닿는 조언들이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제가 지휘할 때 입을 벌리며 호흡하는 습관이 있는데 살로넨의 학창 시절과 똑같다고 놀리시더라고요(웃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지휘라면서, 잘하고 있으니 음악에만 집중하라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음악가도 있으신가요?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존경해요. 지휘에서 인품이 드러나는 분이죠. 단원들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간미, 작곡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음악에 나타나요. 지휘자가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결국 음악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카를로스 클라이버나 마리스 얀손스, 미클로시 페레니와 알프레트 브렌델도 언제나 존경하는 음악가죠.

앞으로 어떤 지휘자로 남고 싶으신지요.

유학 시절 스승님 중 볼프강 보치치Wolfgang Bozic라는 오페라 전문 지휘자가 계세요. 1996년 한국에서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를 초연하신 분인데, 학생이 끊임없이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죠. 똑같은 요리라도 맛내는 법이 각양각색이듯, 동일한 곡을 수십 번 지휘하더라도 음악의 색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싶어요. 레퍼토리 측면에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베토벤을 평생 연구하며 잘 알려지지 않은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 역시 폭넓게 알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음악이란 결국 개인의 안락이 아니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휘가 제 삶의 일부가 되도록, 연구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음악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극만원 〈진실×거짓〉

서로를 비추는 진실과 거짓의 이중주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연극계 화제작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滿員 시리즈가 올해도 성남아트센터 무대를 찾아온다.
2019년 연극만원 시리즈를 여는 첫 무대는 남녀 사이의 거짓과 진실 공방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서로 다른 두 작품의 연작이라는 신선한 형식, 그리고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들의 호연으로 지난 겨울 대학로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의 연극, 〈진실×거짓〉이다.

일시 2월 22일~24일 금 16:00 | 주말 14:00, 17:00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031-783-8000

동시대 프랑스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 플로리앙 젤레르Florian Zeller는 한국에 '연작'이라는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국립극단에서 그의 작품 중 〈아버지Le Père〉와 〈어머니La Mère〉를 연작 형태로 무대에 올렸고, 이번에 소개되는 〈진실×거짓〉 역시 〈진실La Vérité〉과 〈거짓Le Mensonge〉이라는 별개의 두 작품이 함께 묶여서 공연된다. 특이한 것은 그의 연작들이 각기 쓰인 시기도 다르고 내용적으로 전혀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진실〉과 〈거짓〉은 각기 몇 년의 시간차를 두고 쓰였으며 각각 독립적인 구조와 이야기를 갖고 있는 별개의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묶어서 연작 형태로 공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면서도 비슷한 형식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두 작품을 이어서 볼 때 작품의 주제를 조금 더 확장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등장한다. 두 인물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지만, 관객은 두 작품을 연달아 봄으로써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고령화와 치매, 우울증, 노인 소외 등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실〉과 〈거짓〉 역시 비록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서로 이어지거나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름은 같지만 캐릭터의 성격이나 직업 역시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비슷한 형식(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마치 음악의 대위법처럼 비슷한 주제를 반복, 변주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거짓과 진실에 대한 관객의 인식과 사유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연작의 형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다

플로리앙 젤레르가 쓰고 안경모가 연출을 맡은 〈진실〉과 〈거짓〉에는 알리스와 폴, 로렌스와 미쉘이라는 두 부부가 등장한다. 폴과 미쉘은 어릴 때부터 절친이고 아내인 알리스와 로렌스 역시 친한 친구들이다. 그리고 알리스와 미쉘, 로렌스와 폴은 배우자의 눈을 피해 몰래몰래 만나는 연인 관계다. 두 쌍의 부부 사이에서 펼쳐지는 불륜과 배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과 알리바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두 작품 모두 막장 드라마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흥미진진한 치정극 같지만 사실 〈진실〉도, 〈거짓〉도 불륜은 소재일 뿐, 실제로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우정, 신의와 배신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바로 두 작품의 핵심이자 주제라 할 수 있다.
〈진실〉은 미쉘이 연인인 알리스와의 관계를 자신의 아내 로렌스와 절친 폴에게 숨기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 과정 속에서 결국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코믹 소동극이다. 모든 장면마다 미쉘과 알리스, 미쉘과 로렌스, 미쉘과 폴 이렇게 둘만 나와서 대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직 상대적인 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진실〉에서는 유난히 같은 대사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같은 말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일상적인 말로도 들릴 수 있고 은밀한 의미를 담은 말로도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진실' 역시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이 과정 속에서 작가는 누군가를 배신하는 순간 스스로 배신당하게 되는 현실을 매우 코믹하면서도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다.
한편 〈거짓〉은 〈진실〉의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인 토론 속에서 변주, 확대시키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는 미쉘을 목격한 알리스가 이를 로렌스에게 알려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짓〉의 토론은 우정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과 거짓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과연 진실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 진실과 거짓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과 담론을 끝없이 펼쳐내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진실이고 진짜 거짓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진실을 가장한 거짓과 거짓 속에 담긴 진심. 결국 두 공연을 다 보고 나면 관객들은 진실과 거짓이란 완전히 나뉠 수 있는 각각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서로를 비추는 양면적인 존재들이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공연에서는 배종옥, 김정난, 김수현, 이도엽, 김진근 등 개성 넘치는 배우들이 출연해 매번 다른 다채로운 앙상블을 보여준다.

글 **김주연** 연극 칼럼니스트
월간 〈객석〉에서 연극 및 공연 담당기자로 일했고, 연극학 박사과정을 마친 뒤 현재 연극과 공연 전반에 관련해 연구와 집필, 강의 등을 병행하고 있다. 현장과 이론을 잇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01

02

〈신소장품 2018〉展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동시대의 삶

일시 1월 11일~6월 30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문의 031-783-8141~9

성남문화재단은 2019년 첫 전시로 〈신소장품 2018〉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미술관 소장품으로 수집된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큐브미술관의 공공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 알리며 나아가 지역 내 건강한 미술관 문화를 창출하려는 성남문화재단의 꾸준한 의지와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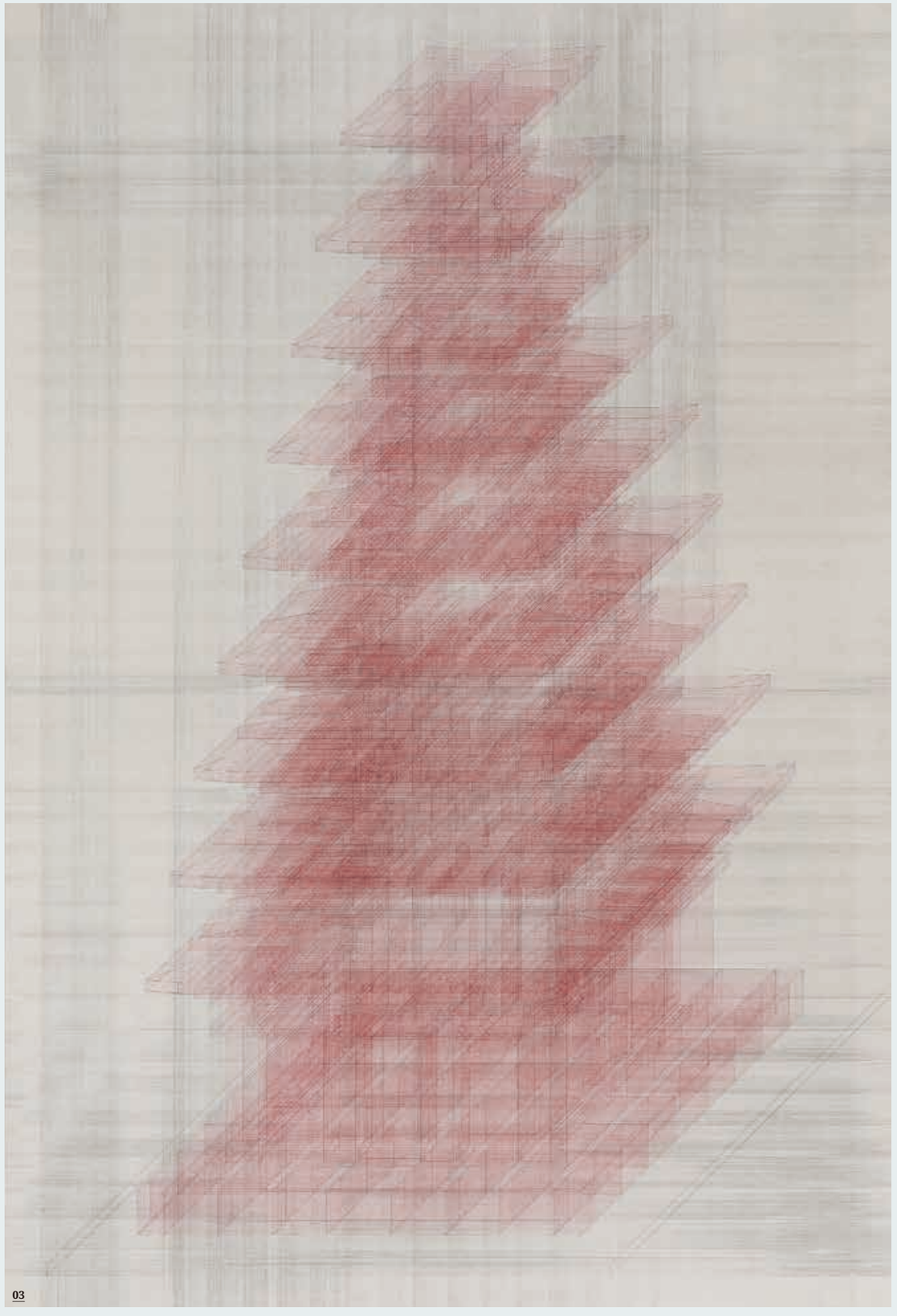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두 11점의 작품을 수집하였으며, 특히 지역 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성남의 발견〉을 통해 수집한 유한이 작가의 신작을 포함해 총 12점의 평면 작품을 미술관의 새 식구로 맞이하였다. 김억, 김춘재, 박미경, 오선영, 위영일, 유승호, 유한이, 이채영, 이혁발, 이호억, 조문희, 최선 등 12명의 작품이 그것이다. 이들은 특정 주제를 풀어내기보다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 또는 각자의 호흡으로 이 시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성남큐브미술관은 동시대 우리네 삶을 공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미술 문화 공공재로서 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대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환기시키는 양질의 소장품 수집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유기적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글 **민재홍**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과장

01
〈신소장품 2018〉
전시 전경

02
박미경, 〈동굴〉
2018
162×130cm
캔버스에 아크릴

03
유한이, 〈탑〉
2018
194.5×131.5cm
장지에 연필, 채색



03

New Acquisitions 2018
2019.1.11FRI-6.30SUN
Seongnam Cube Art Museum
Permanent Gallery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개관시간 10:00-18:00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개관 월요일 휴관 031 783 8141-9 분당선·경강선 이매역 1번 출구 도보 10분 www.snab.or.kr

30 **Cinema Classic**
영화 〈프라하의 봄〉과 야나체크

32 **Book**
이달의 책

34 **Art+Place**
아트 시티를 가다: 밀라노

42 **Art+Trend**
트렌드 키워드 '뉴트로'

44 **Art+Space**
보이지 않는 골목들

49 **Book in Book**
벤치에서…

FEA-TURE

영화 〈프라하의 봄〉과 야나체크

혼돈의 시대, 상실의 순간

체코 출신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첫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작곡가가 있다. 고국 체코의 레오시 야나체크[1854~1928]다. 쿤데라는 체코의 민주화 열기가 소련군의 침공에 의해 짓밟혔던 1968년 '프라하의 봄' 사태 이후 프랑스로 이주했다. 이 때문에 평소 쿤데라는 국경이나 이념의 장벽이 없는 범유럽주의자이자 세계주의자에 가깝다. 하지만 야나체크를 이야기할 때만은 여지없이 뜨거운 민족주의자로 변한다.

레오시 야나체크

"무엇을 통해 내 고국이 내 미학적 유전자에 영속적으로 각인되었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야나체크의 음악을 통해서라고."

쿤데라는 체코 출신 작가 프란츠 카프카와 레오시 야나체크[Leoš Janáček]를 "내가 태어난 조국에서 살았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예술가"로 꼽기도 했다. "둘 다 과소평가받았고, 둘 다 파악하기 어려운 미학을 지녔으며, 둘 다 사회의 편협함에 희생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쿤데라가 스스럼없이 야나체크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는 건 작가의 가족사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 루드비크 쿤데라[1891~1971]는 야나체크 작품 연구로 명망 높은 음악학자이자 피아니스트였고, 야나체크의 활동 무대였던 브르노는 루드비크의 고향이었다. 브르노에서 루드비크는 야나체크 음악의 초창기 지지자 가운데 하나로 활동을 시작했다. 아들 쿤데라는 "유년 시절부터 나는 매일 아버지나 아버지의 제자들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야나체크의 음악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루드비크가 1922년부터 19년간 재직했던 브르노 음악원은 야나체크가 건립을 주도한 명문 음악 학교였다. 심지어 1971년 루드비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연주한 음악도 야나체크 현악 4중주 2번 '비밀 편지'였다. 쿤데라의 아버지 루드비크의 삶과 죽음은 야나체크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야나체크에 대한 쿤데라의 애정이 편협하거나 옹졸한 민족주의에 바탕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곤란하다. 『불멸』『농담』『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쿤데라의 작품에는 언제나 진실과 농담, 무거움과 가벼움, 영원과 찰나, 성스러움과 속됨이 공존하고 있다. 실제 야나체크는 말년인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스트라빈스키, 버르토크, 힌데미트 같은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글 **김성현** 조선일보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시네마 클래식』 등 다양한 책을 펴냈다. 최근작으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모차르트의 삶과 예술세계를 재조명한 『모차르트』가 있다.

프라하의 봄[1988]
감독 필립 카우프만
출연 다니엘 데이 루이스, 줄리엣 비노슈, 레나 올린

조명을 받았다. 이 유쾌한 역설을 쿤데라는 "청년기엔 고독한 보수주의자였다가 늙어서 개혁자가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프라하의 봄〉[1988]에 야나체크의 음악이 흘렀던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영화에서 외과 의사 '토마스'(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가볍고 자유분방한 연애 행각을 묘사할 때는 야나체크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동화童話'가 흘렀다. 반면 토마스의 여성 편력에 상처 받는 시골 처녀 '테레사'(줄리엣 비노슈)를 상징하는 주제 음악은 피아노 독주곡 '잡초가 우거진 오솔길에서'다. 야나체크의 또 다른 피아노 독주곡 '안개 속에서'는 이들과 삼각관계에 빠진 여인 '사비나'(레나 올린)를 따라다닌다.

한없이 가벼웠던 이들 남녀의 운명은 '프라하의 봄' 사태 이후 뒤틀리고 엇갈린다. 영화 후반부에서 흐르는 음악이 현악 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와 2번 '비밀 편지'다. 두 곡의 현악 사중주는 38세 연하의 유부녀 카밀라 스퇴슬로바에게 빠져들었던 작곡가 말년의 연정이 낳은 걸작이다. '크로이처 소나타'는 관습적인 결혼과 열정적 사랑 사이의 균열을 묘사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비밀 편지'는 작곡가가 스퇴슬로바에게 보냈던 편지들에서 유래한 제목이다. 영화에서 이 곡들은 체코의 정치적 격변으로 뿌리째 흔들리는 청춘 남녀의 운명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삶은 가벼운 거야. 계획표처럼 더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라는 토마스의 대사처럼 청춘이 가벼움을 뜻한다면, 시대는 무거움을 상징한다.

그토록 완벽히 어우러진 음악

통속적 멜로물에 가까운 영화가 쿤데라 소설 특유의 철학적 깊이를 제대로 담아냈는지는 의문이 남았다. 심지어 원작자인 쿤데라도 훗날 영화가 원작 소설이나 등장인물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편을 장식한 야나체크의 음악만큼은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음악과 영화가 너무나 잘 섞여서 흡사 야나체크가 영화를 염두에 두고 작곡한 것만 같았다"는 체코 영화감독 얀 네메크의 평처럼 말이다.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일종의 '후일담 문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원작이 소련의 무력 침공으로 좌절된 체코의 민주화 열기를 배경으로 삼았다면, 1990년대 국내에서는 공산권 붕괴 이후 운동권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읽혔다. 당시 이 작품이 공지영과 박일문, 이인화의 소설과 나란히 꽂혀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쿤데라를 괴롭혔던 소련 공산주의가 당시 한국에서는 진지하게 체제 대안으로 인식됐다는 사실도 지금 생각하면 무척 역설적이다. 그래서일까, 영화의 원작인 쿤데라의 소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편에 형언하기 힘든 슬픔이 차오르는 것만은 숨길 수가 없다. 그 슬픔은 과거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일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함일까. 혹시 모두 뒤섞인 감정은 아닐까.

이달의 책

100년 전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주목받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그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던 이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등의 이야기를 통해 100년 전 선조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선우진 지음
최기영 엮음
푸른역사, 352쪽
16,000원

1945년 1월 31일, 스물넷의 청년 선우진은 중국 충칭重慶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백범 김구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백범이 서거한 1949년 6월 26일까지 그의 수행비서로 일했다. 4년 반 동안 백범을 곁에서 지켜본 비서가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백범의 면모는 물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던 인간 백범의 모습을 회상하는 책이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38선을 넘어 김일성을 대면하던 순간, 광복 이후 C-47 수송기를 타고 귀국하던 감격스러운 순간 등 역사의 현장부터 귀국 후 경교장에 머물던 모습 등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저자는 백범 암살의 현장도 지켜봤다. 경교장에서 백범 암살범 안두희가 권총을 떨어뜨리며 "선생님을 내가 죽였다"고 말하던 때 백범의 얼굴과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선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자신도 역시 광복군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선우 옹은 2009년 5월 18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글 **황희경** 연합뉴스 기자
글을 쓴 황희경은 고고미술사를 전공하고 2002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로 재직 중이다.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글쓰기를 모색하고 있다.

날개옷을 찾아서

정혜주 지음
하늘자연, 332쪽
15,000원

한국의 첫 여성 비행사였던 독립운동가 권기옥1901~1988의 일대기를 그린 평전. 미국인 비행사의 곡예비행을 보고 비행사의 꿈을 키우던 소녀는 3·1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중국 상하이로 떠났다. 비행사가 돼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안기겠다는 생각에 중국에서 여성 비행사 자격을 땄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행기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탓에 중국 공군에 들어가 항일 전선에서 싸웠다. 해방 후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으로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힘을 보태는 등 평생을 사회적 금기와 싸우며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온 인물의 일대기가 소설처럼 펼쳐진다.

책을 쓴 소설가 정혜주는 권기옥을 두고 "굴곡진 역사 속에서 일찍 죽지 않았고 훼절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인물"이라고 평했다.

민들레의 비상

지복영 지음
이준식 정리
민족문제연구소, 300쪽
15,000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의 막내딸 지복영은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후 중국 곳곳을 유랑했다. 음악을 좋아해 성악을 공부하기도 했던 그는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 때 여군으로 입대해 기관지 편집부터 광복군 모집, 적을 상대로 한 방송, 광복군 총사령부 비서 등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태어나서부터 광복 직전까지 지복영의 삶을 담은 이 책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인 동시에, 개인의 꿈은 접어둔 채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주해 힘들게 살아야 했던 신산辛酸한 독립운동가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복영 선생은 광복 후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대학 도서관 사서로, 교사로 근무하다 2007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인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이 어머니가 남긴 기록을 토대로 정리해 책을 펴냈다.

서간도 시종기

이은숙 지음
일조각, 392쪽
35,000원

후손들에게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독립운동가 아내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의 회고록인 이 책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개화파 지식인의 딸이었던 이은숙은 해외에서 독립운동 터전을 가꾸겠다는 남편을 따라 결혼 2년여 만인 1910년 말 서간도(만주)로 떠난다. 이회영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이자 재산가였지만 독립운동 자금을 대느라 집안의 모든 것을 바쳤다. 아내는 공장을 다니며 삯바느질을 해 생활비를 마련했고, 경찰이 수시로 집을 수색하는 것이 일상이었으며, 마적 떼의 총에 맞아 생사의 기로를 헤매기도 했다. 남편이 감옥에서 순국한 후에도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당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계속해야 했던 지난한 시간의 기록 속에서, 독립운동가 가족의 삶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하는 책이다.

아트 시티를 가다: 밀라노

다빈치에서 프라다까지

밀라노는 예로부터 경제, 공업, 교육,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다. 밀라노 패션 위크가 열리는 패션의 중심지이자 박람회의 도시이며, 역사적인 브레라 미술관부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자리한 르네상스 미술의 성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5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프라다 재단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이 도시에는 '현대미술의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다빈치부터 루이즈 부르주아까지 만날 수 있는 이곳, 고전과 혁신이 만나는 예술의 도시 밀라노를 소개한다.

밀라노의 랜드마크이자 심장부인 밀라노 대성당

01

거의 모든 것의 중심지, 밀라노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지, 공업의 도시, 교육의 도시, 종교의 도시, 패션의 도시, 박람회의 도시, 오페라의 도시, 예술의 도시… 밀라노를 수식하는 단어는 셀 수 없이 많다. 인구 130만의 밀라노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제조업 산업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최대 공업 도시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 다국적 은행이나 금융 회사의 본사가 있고 구글, 라이코스, 야후의 지사도 로마가 아닌 밀라노에 있다. 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교통의 요지다 보니 예로부터 경제적인 융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외세에 지배받았던 질곡의 역사도 갖고 있다.

밀라노는 런던, 뉴욕, 파리와 함께 세계 4대 패션쇼인 '패션 위크'가 열리는 패션 중심지이기도 하다. 1980년대, 밀라노의 몇몇 패션숍들이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이곳은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아르마니, 발렌티노, 베르사체, 프라다, 돌체 앤 가바나 등 이탈리아 대표 명품 패션 브랜드 역시 대부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여행자들은 이 도시에 오면 밀라노 대성당인 두오모Duomo di Milano부터 찾아간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과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 다음으로 큰 성당인 밀라노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밀라노의 랜드마크이자 이 도시의 심장부로, 이탈리아 고딕 건축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 건축물이다. 1386년 밀라노 영주였던 잔 갈레아초 비스콘티에 의해 시작된 성당 건축은 이후 500년 넘게 이어졌는데, 135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백색 대리석 건물은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한다.

대성당이 있는 두오모 광장 북쪽에 위치한 회랑 건물인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II' 역시 밀라노의 상징이다. 1877년 완공된 대형 아케이드 쇼핑몰로, 천장의 우아한 유리 돔과 바닥의 모자이크 문양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초대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헌정하기 위해 주세페 멘고니Giuseppe Mengoni가 설계했다. 두오모 광장과 스칼라 극장 앞 광장을 이어주는 광대한 아케이드 안에는 프라다, 루이비통, 토즈, 구찌 등 명품 브랜드숍부터 크고 작은 상점과 식당이 밀집해 있어 언제나 인파로 붐빈다. 밀라노에서 출발한 글로벌 브랜드 프라다도 이 갤러리아 건물에서 시작했다.

15분 동안 만나는 다빈치의 걸작

미술 애호가들에게 밀라노는 좀 더 특별하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회화의 보고라 불리는 브레라 미술관을 비롯해 크고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50여 개나 있지만,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보려면 성당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몇 달 전부터 사전 예약해야 겨우 관람할 수 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그 명성에 비해 실제로 작품을 본 사람은 드물다.

밀라노의 심장부인 두오모에서 도보로 20분쯤 가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Santa Maria delle Grazie 성당이 나온다. 1463년 준공된 이 성당은 15세기 말 우르비노 출신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Donato Bramante가 증개축했고, 198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명한 다빈치의 그림은 이곳 수도원 식당 건물 북쪽 벽에 그려져 있다. 피렌체에 있던 다빈치가 밀라노에 와서 식당 벽화를 그리게 된 사연은 이렇다.

14세기 말 비스콘티 공작 치세에 막대한 번영을 누렸던 밀라노는 15세기에 이탈리아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 비스콘티가의 장군이었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1401~1466가 영주로 이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 대성당이 건축되고 운하가 개통되었다. 그의 뒤를 이은 루도비코 스포르차1452~1508는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실력 있는 장인과 건축가, 예술가들을 고용해 도시를 건설하고 궁정을 지어 장식하도록 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임명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주도했던 도나토 브라만테, 그리고 다재다능한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도시에 와서 밀라노의 황금시대를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두오모, 스포르체스코 성,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산 사티로 성당 같은 밀라노의 위대한 건축물들이 모두 이 시대에 지어졌다.

02

03

01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II.
1877년 완공된 대형 아케이드 쇼핑몰로 천장의 유리 돔과 바닥 모자이크 문양이 특징이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숍과 상점들이 밀집해 언제나 인파로 붐빈다

02, 03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이곳에 자리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사전 예약을 통해 단 15분간 관람이 가능하다

04
밀라노 회화의 보고, 브레라 미술관

04

글·사진 **이은화**
미술 평론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객원교수, 융합미술연구소 크로싱 소장.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런던 소더비 예술대학원에서 현대미술학,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표 저서로 『그랜드 아트 투어』 『가고 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1463년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공작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도미니크 수도회에 기증해 교회를 짓게 했다. 15세기 말, 밀라노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브라만테에게 교회 건물 확장 및 개축 공사를 맡겼고, 다빈치에게는 수도원 식당 내 북벽에 〈최후의 만찬〉을 그리도록 주문했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 자리를 그린 것으로 수도원 벽화 장식에 자주 쓰이던 주제였다. 탁월한 원근법 사용과 안정된 구도는 물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움직임과 심리 상태까지 탁월하게 표현한 걸작이다. 당시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선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식탁 반대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다빈치는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자로 배석시켜 표현했다. 그림의 안정된 구조와 통일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빈치는 이 벽화를 그리는 데 꼬박 4년을 바쳤다. 호기심 많고 실험 정신이 강했던 그는 이 신성한 주제를 그리면서도 획기적인 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벽화로 보편적이던 프레스코화 대신 색상이 선명하고 작품 수정이 가능하도록 템페라와 기름을 섞어 쓰는 실험적인 방식을 택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다. 식당의 습기 때문에 안료가 쉽게 벗겨지는 것은 물론, 이후 이어진 잘못된 복원으로 벽화는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다. 현재의 모습은 1978~99년, 약 20년간 이어진 복원 작업의 결과물이다. 다행히 화가가 완성 직후에 베껴 그린 그림이 남아 있어 이를 기준으로 원화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후의 만찬〉 관람은 회당 20명 정도의 그룹을 이뤄 입장하며 15분간 관람 가능하다. 다빈치의 원화가 주는 단 15분의 감동을 위해 세계 도처에서 온 관람객들이 몇 달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마다 않는 것이다.

프라다를 입은 미술관

다빈치 벽화가 있는 성당이 밀라노의 전통적인 미술 순례객들이 찾는 명소라면 2015년 개관한 프라다 재단 미술관은 현대미술 마니아들과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다. 설립 10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세운 이 공간은 현대미술관을 겸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1만 9,000m^2 규모의 옛 증류주 양조장 부지에 밀라노 남부 산업 단지 '라르고 이사르코'의 버려진 철을 활용해 지었다. 1910년대에 지은 양조장 사무실, 실험실, 증류주 수조, 창고 등 기존 건물들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어린이 도서관, 카페, 전시장 등으로 개조했고, 기획전시를 위한 '포디움Podium',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영화 상영관인 '시네마Cinema', 60미터 높이의 '탑Torre' 등 세 개의 새로운 건물이 추가되었다.

리모델링 설계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건축 거장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맡았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콜하스는 프라다의 매장뿐 아니라 2011년 베네치아에 개관한 재단 미술관의 리모델링 설계도 맡는 등 프라다의 오랜 파트너 건축가로 함께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면 휑하고 밋밋한 산업 시설 단지처럼 보이지만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련되면서도 독특한 전시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매표소를 겸한 카페가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프라다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공간이 펼쳐진다. 안내 데스크나 복도, 짐 보관소 등 어디든지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먹색 톤으로 마감돼 있고, 올리브그린의 포인트 컬러가 인상적이다. 마치 건물 자체가 프라다의 심플하고 미니멀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미술관 직원들도 모두 프라다 숍의 판매 직원들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과 미소로 무장하고 관객들을 맞이한다.

같은 건물에 있는 카페 '바 루체Bar Luce'는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이 디자인한 것으로 전형적인 밀라노 카페 분위기를 재현했다. 밀라노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인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의 유리 지붕을 본떠 천장을 장식했고, 1950~60년대 이탈리아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아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들을 꾸몄다. 비아 오로비아 거리에서 바로 통하기 때문에 꼭 미술관 관람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단지 내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가장 압도하는 건물은 외벽에 황금을 입힌 '하운티드 하우스Haunted House'다. 우리말로 '흉가'를 뜻

05

06

05, 07
2015년 개관한 프라다 재단 미술관은 1910년대에 지어진
옛 증류주 양조장 건물들을 활용해 개조했다.
휑한 산업 단지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련미와 개성을 갖춘 전시 공간이 펼쳐진다

06
프라다 재단 미술관 매표소 건물 내부.
마치 프라다의 심플하고 미니멀한 옷을 입고 있는 듯,
곳곳이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07

08

11

09

10

08
2017년 프란체스코 베촐리가 이탈리아 공영 방송 Rai와 협력해 제작한 프로젝트 전시 〈TV70〉

09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이 디자인한 미술관 내 카페 '바 루체'. 전형적인 밀라노 카페 분위기를 재현했다

10
프라다 재단이 젊은 작가들을 위해 시내에 별도 마련한 전시관인 오세르바토리오. 1984년생 일본 작가 후지와라 사토시의 개인전 전경

11
금빛 찬란한 외벽으로 단연 눈에 띄는 상설전시장 하운티드 하우스. 우리말로 '흉가'를 뜻하는 하운티드 하우스 내부에는 로버트 고버와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하는 하운티드 하우스는 이곳의 유일한 상설전시관으로, 내부에는 미국 개념미술가이자 조각가인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대형 거미 조각으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 페미니스트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층계를 따라 올라가다 만나게 되는 두 작가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도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테라스까지 금빛 찬란한 화려한 '흉가' 건물과 주변 산업 단지 건물들의 묘한 조화도 인상적이다.

포디움, 남쪽 갤러리, 북쪽 갤러리 등으로 불리는 나머지 건물들은 다양한 주제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위한 기획전시 공간이다. 개관전에는 영국의 스타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를 비롯해 이탈리아 악동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 독일 태생의 포스트미니멀리즘 조각가 에바 헤세 등의 작품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런 세계적 명성의 작가들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제 3 세계 출신 젊은 작가들의 혁신적인 전시, 특정 주제를 탐구한 프로젝트형 전시가 열리기도 한다. 2017년에 열린 기획전시 'TV70'은 프란체스코 베촐리Francesco Vezzoli가 이탈리아 공영 방송 라이Rai와 협력해 제작한 프로젝트 전시였다. 이탈리아 공영 TV는 1960년대 급진주의에서 1980년대 쾌락주의로 전환하면서 이탈리아 문화 및 정체성 창출의 기계로 해석되곤 한다. 작가는 1970년대 이탈리아 텔레비전은 어떻게 의식을 제작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신화가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인들의 의식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프라다 재단은 더 젊고 혁신적인 작가들을 위한 전시관인 '오세르바토리오Osservatorio'를 밀라노 시내에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관측소'라는 뜻의 '오세르바토리오'는 밀라노의 중심 쇼핑 타운인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II'에 위치한다. 사진 및 시각 언어 전용 전시 공간을 표방한 이곳은 현대사진의 트렌드와 표현을 탐구하는 동시에 사진과 다른 분야 사이의 창의적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

사실 프라다는 이미 1993년 밀라노에 프라다 재단을 설립해 세계적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수집하는 등 현대미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또 기업의 주 종목인 패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축·영화·순수미술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후원을 통해 글로벌 명품 문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패션과 예술, 건축을 결합한 프라다의 비전과 문화예술 마케팅의 정점을 찍은 결과물이 바로 밀라노 프라다 재단 미술관인 것이다. 가죽 소재를 거부하고 방수 천인 나일론으로 명품 가방을 만들어 패션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미우치아 프라다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현대미술의 정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프라다 재단 미술관의 탄생으로 프라다 기업은 미술관 기업이라는 제 2의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밀라노는 다빈치에서 프라다를 입은 미술관까지 만나는 '고전과 혁신이 만나는 예술의 도시'이자 '현대미술의 도시'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트렌드 키워드 '뉴트로'

뉴트로, 혹은 오래된 미래

오늘날 대중문화뿐 아니라 의류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복고가 유행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복고 열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을 '레트로'라고 불렀다. 지금은 그 문화를 '뉴트로'라 일컫는다. 우리는 그 용어에서부터 닮은 듯 다른 복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얼마 전 롱패딩을 샀다. 정말로 더욱 추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추위를 견디기 힘든 몸으로 변한 것인지 의아한 채로 일단은 너무 추워서 쇼핑몰 매장을 몇 바퀴 돌면서 옷을 골랐다. 그러다가 '필라' 매장에서 단 하나 남은 롱패딩을 샀는데, 매장 직원이 머뭇거리더니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하니 이 옷은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 갔으니 혹시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무안하지 않겠냐는 세심한 배려였다. 뭐 얼마나 많이 팔렸기에… 라고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나는 거리에서 같은 옷을 입은 '어린 친구들'과 마주친다. 하아….

그런데 가만. '필라'는 사실 내가 중고등학생 때 유행한 브랜드였다. 1980년대 말~90년대 초반이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다. 그런데 필라뿐 아니라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브랜드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의류 브랜드를 포함해 라이프스타일에 전반적으로 복고가 유행이다.

이렇게 과거가 현재에 부활하는 현상을 우리는 '레트로'라고 부른다. 레트로스펙트Retrospect의 줄임말로, 보통 과거의 전통을 그리워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필라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의류 브랜드도 있고, '○○ 상회' '○○당'처럼 옛날, 그러니까 1960~80년대 한국 상점의 느낌을 풍기는 간판도 있다. 혹은 더 오랜 과거, 개화기가 연상되는 인테리어나 서체를 쓰는 브랜드도 있다. 을지로의 '커피한약방'이란 카페는 오래된 자개장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는데, 이곳은 이미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젠 레트로가 아닌 '뉴트로'라는 말로 부르며 재해석하는 것 같다. 뉴트로는 '뉴(New)+레트로(Retro)'의 합성어로 과거의 향수 어린 소품이나 기기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문화를 일컫는다. 레트로와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레트로와는 달리 뉴트로는 과거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금 여기의 최신 테크놀로지나 현대적인 감수성을 결합한 결과에 가깝다. '뉴트로'에는 최신의 것과 과거의 것이 결합하면서 노스탤지어와 트렌드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빈티지 디자인의 가구를 비롯해서 구식 디자인의 턴테이블에 블루투스 기능이 결합되거나, 투박하게 생긴 카세트 플레이어에 USB 녹음 기능이 결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LP를 테마로 삼은 '서울레코드페어'와 독립 출판물·창작자 축제인 '언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행사도 마찬가지다. 요즘 문화예술계는 오래된 소품들 외에도 어떤 지역의 역사, 가게의 이력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토대로 새롭고 낯선 기획들을 선보이기도 한다. 내가 입고 다니는 롱패딩은 요즘 옷답게 날씬하게 핏 되는 라인 위에 전통적인 필라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아침마다 30년 전 중학생이 된 기분이 들 정도로 향수를 자극하는데, 이 옷을 처음 입어보는 세대는 어떤 기분일지 궁금할 정도다.

01, 02
'복고 웨딩'과 '경성시대' 콘셉트의 산격동 사진관

03

04

05

06

03
솔탄 오브 더 디스코의 디지털 앨범
〈웨ㅐㅐㅐㅐ〉

04
붕가붕가레코드의 블루스 컴필레이션
앨범 〈블루스 더, Blues〉

05
혹시몰라의 싱글
〈왈칵〉

06
독립 출판물·창작자 축제
'언리미티드 에디션'

뉴트로 현상은 어째서 이토록 일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까? 먼저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요즘의 젊은이들은 점점 더 자기의 취향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트렌드 맵과 키워드 분석 리포트를 보면, 최근의 20대에게 중요한 키워드로 '실감세대', 즉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세대'가 등장한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고 가상현실과 같은 공간감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의 경험이 중요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들은 간접 체험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실감'의 기준을 디테일에서 찾는다. 디테일이란 마침내 끝까지 살피고 살필 때에 구현되는 것이다. 번듯하게 보이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던, 자신이 겪은 진짜 기억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할 때 비로소 구현되는 요소다. 그래서 디테일이 겨누는 것은 경험이다. 이전의 디테일이 '완성도'를 지향했다면 지금의 디테일은 '사용자 경험'을 향한다.

그런데 이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돌아보면 2013년 무렵에는 '힐링'과 '취향'이란 말이 유행했다. 그 맥락에는 '우리'에서 '나'로 가치판단 기준이 이동하고, 경제 불황으로 연애나 결혼, 주거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대신, '소확행'이나 '구독'과 같은 행동 양상으로 여가와 취미가 중요해진 흐름이 있다. 이런 시간을 거친 2019년 현재, 당시 10대였다가 지금 2030이 된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존감이 강한 세대가 되었다고 본다. 덕분에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혼자'라는 감각이 중요해진다. 그렇게 우리가 아닌 '나'라는 맥락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 '경험'이 중요해지고, 그 경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해지는 맥락에서 '과거의 것'이 독특한 경험이나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뉴트로'라는 현상에는 LP나 독립 출판물 등 아날로그 취향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감각이 그저 '향수'라는 개념으로만 묶이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이들에게는 아날로그 시절의 향수가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그리움'이 아니라 '신기함'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뉴트로'는 과거의 것을 통해 현재(혹은 미래)를 재발견하게 하는 현상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고 다시 전파하는 역할을 떠나 좀 더 입체적인 경험으로 수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런 현상은 지금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 아카이브가 일상화된 세계에서 정보는 경험과 감각을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현실성을 얻는 것 같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와 현재가 강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글 **차우진** 대중문화 평론가
음악 웹진 〈weiv〉를 비롯해 〈GQ〉 〈NYLON〉 〈씨네21〉 〈한겨레21〉 등 다양한 매체에 음악과 대중문화에 대한 글을 썼다. 지은 책으로 『청춘의 사운드』 『대중문화 트렌드 2018』(공저), 『아이돌』(공저) 등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골목들

도시의 핏줄 '골목'의 의미

당신은 오늘 몇 개의 골목을 지나쳐 왔는가. 그 골목에는 내가 자주 가는 세탁소도, 마트도, 카페도 있다. 때때로 잠시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익숙한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골목은 모두가 사용하는 장소이자 우리 집으로 가는 통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골목을 통해 개인의 삶부터 도시의 문화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과거는 마치 손에 그어진 손금들처럼 거리 모퉁이에, 창살에, 계단 난간에, 피뢰침 안테나에, 깃대에 쓰여 있으며 그 자체로 긁히고 잘리고 조각나고 소용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에 담겨 있습니다."

–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중에서

도시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골목은 산소와 피가 흐르는 핏줄이다. '골목'의 사전적 의미는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지만, 단순히 '좁은 길'로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규모나 형상에 있어 사람이 최소 통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도시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의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도로라면, 골목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생성된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큰길에서 나뉜 작은 길에 불과하지만 시간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함께 모습을 바꿔나가는 골목은 동네를 형성하고 도시 조직을 변화시켜나간다.

골목은 주민들의 생활 문화가 드러나는 공간이며, 사교와 정보의 장이기도 하고, 역사적 흔적을 품은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는 골목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나 문화로 대변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과 잠재력에 비춰 볼 때 골목을 단순히 빈 공간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탈로 칼비노가 '도시가 이와 같이 조밀한 기호의 껍질 속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가지고 혹은 숨기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삶이 머무는 자리

서양의 경우 거리가 형성되고 건물이 세워진 반면, 아시아의 경우 집들에 의해서 골목이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유럽은 골목을 따라 건물의 입면이 연속되면서 건물과 골목이 이분화되지만, 우리나라의 골목은 담, 처마, 화분, 자전거 등 삶의 요소가 켜켜이 쌓여 건물과 길을 이분화하기 어려운 층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골목에서 우리는 주민들 삶의 형상을 더 잘 발견하게 된다.

골목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집 다음으로 가장 인체와 가까운 스케일을 지니면서, 일상적인 배경이 된다. 방이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면 현관, 처마 밑, 마당, 대문, 집 앞, 골목, 길, 도로 순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골목은 외부와 내부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가진다. 거주자들은 주로 골목 공간을 자기의 소유에서 벗어난 공공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적 공간으로 여겨서, 화분을 놓아두거나 담장을 꾸미는 등 개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골목의 곡선, 형태, 공간은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동네의 고유한 풍경을 만든다.

또한 골목은 단순히 목적지로 향하는 통로로만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행위들을 수용한다. 만남, 대화, 놀이, 산책, 세차와 같은 생활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주자에게 소중한 제 2의 생활공간이 되는 셈이다. 삶이 머무는 자리로서 골목은 거주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다, 골목을 따라 변하는 풍경은 공간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만든다.

마을 공동체는 골목으로부터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은 '쌍팔년도 쌍문동, 한 골목 다섯 가족의 왁자지껄 코믹 가족극'을 그린 드라마로 골목과 그들의 집이 주요 공간 배경이었다. 이 드라마에서 골목은

글 **박세미** 시인, 월간 〈SPACE〉 기자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현재 건축 전문지 월간 〈SPACE〉에서 기자로 활동 중이다. 『너의 아름다움이 온통 글이 될까봐』(문학동네, 2017) 『그래, 사랑이 하고 싶으시다고?』(제철소, 2017) 등을 공동 집필했다.

01
철공소들과 다양한 예술가의 작업 공간이 있는 문래동

02
연남동 주택가 골목에서 개최되었던 플리마켓 '따뜻한 남쪽'

01

단순한 길, 혹은 개인의 외부 공간이 아니라 한 동네의 여러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공간으로 그려졌다.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 공간에서 상호 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본다면, 마을에서는 골목이 주된 소통 공간이다. 골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생활 정보 교환, 공동생활 실천, 사교, 아동의 놀이 등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수반한다. 마을의 복도이자 거실인 셈이다.

골목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꾸려가는 대표적 사례로 성미산 마을을 꼽을 수 있다. 행정구역 상에서 성미산 마을은 확인할 수 없다. 성미산 인근에서 공동 육아를 기반으로 시작된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1994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모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이곳에 거주하는 1천여 명의 주민이 공동 육아, 공동 교육, 공동생활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로 살아간다.

이처럼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콘텐츠가 다양한 공간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골목을 따라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하다. 이는 골목이 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골목에 새겨진 기억과 역사

앞서 이야기한 거주민들의 삶의 형태, 공동체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퇴적된 골목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를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다. 골목 안에는 개인의 삶, 공동체 문화 양식, 관계의 구조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기억과 역사를 추적할 수 있다.

백 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온 골목을 우리는 서촌에서 볼 수 있다.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촌의 골목길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에 따라 1910년대에 작성된 지적도의 골목 형태와 거의 일치한다. 경복궁 서쪽, 청와대 부근에 자리한 서촌은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 덕분에 과거의 골목과 한옥을 오래 간직해왔다. 지금도 낮게 깔려 있는 기와지붕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붉은 벽돌과 타일, 시장과 오락실, 목욕탕, 갤러리와 카페,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인왕산의 풍경은 서촌 특유의 골목 분위기를 만든다. 서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느리게 골목을 걸으며 피부로 역사를 느낀다. 그리고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공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장소성이 된다.

해방촌 역시 근대 주거지 형성 과정과 도시 조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다. 해방촌은 일제 강점기까지 나대지였다가 광복 이후 이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 도시화 시기에 인구가 최고조를 이루며 주거지로서의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구릉지의 꼭대기에 살던 주민들이 도심으로 가기 위해 걷던 길에 자연스럽게 신흥시장이 생겨났고, 해방촌오거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동사무소가 설립되면서 도심 속 주거지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자리 잡은 해방촌 골목 뼈대 역시 지금까지 살아 있으며, 여기에는 거주민들의 생활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처럼 우리는 골목을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으며, 골목을 따라가며 과거의 기억들을 체험하게 된다.

산업과 문화의 집결지

주거지에서의 골목뿐 아니라 도시에는 산업 생태계 혹은 상업 문화와 결합된 골목도 많다. 창신동 봉제거리, 성수동 수제화거리, 세운상가 인쇄골목 등처럼 특정 산업군이 모여 있는 골목이나 이태원,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골목 상권이 그것이다. 골목 상권은 대로변이 아닌 거주지 인근의 좁은 도로를 따라 형성되는 상권 세력 범위다. 경제 성장기를 통해 경제적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됐던 골목이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망리단길(마포구 망리단길), 샤로수길(관악구 봉천동) 같은 독특한 분위기의 골목 상권이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골목길 구석구석에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골목 상권 또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1세대 골목 상권인 이태원, 삼청동, 가로수길 등에 이어 새롭게 떠오른 골목 상권으로는 망리단길, 샤로수길, 연남동 골목 등이 대표적이다. 연남동 골목은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조성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주변 골목에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골목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연동되면서 새로운 감성과 도시 문화를 생산해내고 있다.

02

앞에서 살펴본, 도시에서 골목이 지닌 몇 가지 의미를 볼 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을지로 재개발 문제는 우리에게 골목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을지로 3가는 후미지고 낡은 느낌의 골목을 따라 오래된 식당들과 호프집, 새로 생긴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들이 있어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던 골목 상권 중 하나였다. 이러한 노포들과 공구상 거리가 철거 위기에 놓이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청계천·을지로 일대를 '제조산업특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재개발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비친다. 을지로의 건물 중에는 노후화되어 존속에 위험이 따르는 건물도 많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옛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들끓고, 또 다른 쪽에서는 사라져가는 골목, 또는 그 골목에서의 새로운 소비와 문화를 열망한다. 우리에게 골목은 정서적으로 그립고 새롭게 향유하고 싶은 대상이면서, 골목의 모양만 남기는 것이 도시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또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골목에 대한 재발견과 재해석을 통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새로 정비해야 할지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골목이 단순히 도시·건축에 국한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행정가, 도시계획가, 건축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의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SEONGNAM ART BANK

SNAB

성남미술은행

성남미술은행(SNAB)은 저렴한 가격에 미술작품을
대여, 감상 할 수 있는 아트 쉐어링 프로그램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snab.or.kr

작품대여문의 031 783 8141-9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SNAM
성남큐브미술관

We are the champions

글 **권현숙**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작품으로 『인샬라』『루마니아의 연인』『에어홀릭』『나의 푸르른 사막』
『인간은 죽기 위해 도시로 온다』『열린 문』 등이 있다. 한겨레신문 문학상,
이상문학상 우수상,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했다.

슈트는 작업복이다.
맞는 말이지. 슈트를 입고서야 남자는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 일이든, 연애든.
김 부장은 눈 뜨자마자 옷걸이에 소중히 걸어둔 새 슈트를 바라보았다.
은은한 광택이 나는 회색 바탕에 보일 듯 말 듯 자주색 잔 줄무늬가 들어간 세련된 색상이 특히 마음에 든다.
옷장 속에 몇 벌 되지도 않는 기성복 슈트들은 딱 두 가지 색뿐이다. 상갓집 갈 때 입는 검정색,
거래처 사람 만날 때 입는 감색.
슈트에 흰 셔츠까지 정말 옷태 폭발이다. 대대로 이름난 명장의 양복점에서 맞춘 정장이니 디자인이나
바느질이야 뭐 더 볼 것도 없다.
옷을 보고 설레기는 또 처음이네. 집에 마누라 두고 밖에서 예쁜 여자와 데이트하는 기분이 이럴까?
오늘 김 부장의 기분이 딱 그렇다. 더는 참을 수 없어진 그가 벌떡 일어나 팬티 바람에 상의를 입었다.
어깨에 패드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가슴 부분도 약간 두툼한 것이 당당해 보인다. 양팔을 90도 직각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여러 번 해본다. 화장대 거울로 보니 팔의 움직임에 따라
옷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동안 입었던 기성복들은 모양이 틀어지기 일쑤였는데 역시!
오늘 이 멋진 슈트를 입고 전 직원 앞에서 상을 받는단 말이지, 내가!
플랜트 시공 업체에 근무하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공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다.
자연히 작업복이 일상복이 됐다. 원청업체 사람들을 만날 때는 공손히 슈트를 입지만 오늘은 아니다.
'내가 챔피언이다.' 김 부장은 팬티 바람에 상의만 걸친 거울 속 우스꽝스런 남자를 향해
만족스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침부터 무슨 고기 냄새지?
김 부장은 킁킁 냄새를 맡으며 식탁으로 향했다.
아내가 재취업에 성공한 뒤로 아침마다 전쟁이다.
세 식구가 저마다 속옷 바람으로 뛰어다니는 풍경이라니. 제대로 된 아침 식사는 꿈도 못 꾼다.
그래도 음악 하는 딸아이 뒷바라지에 아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고마울 따름이다.
"오늘은 햄버거야. 땡 소리 나면 각자 레인지에서 꺼내 먹어."
아내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면서 소리 질렀다.
그래, 아침 한 끼쯤 빵이면 어떻고 햄버거면 어떠랴. 비록 어제 사 온 햄버거라도 비상 조치는 해놓았겠지.
적어도 고기 패티는 분리해놓았다가 아침에 다시 끼워 데울 정도는 되는 여자니까.
김 부장은 새 슈트를 빼입고 큰 거울 앞에 섰다. '아주 멋져. 완벽해. 출근하면 직원들이 난리 나겠군.'
부장님, 오늘 짱 멋지세요.
슈트발 죽입니다.
완전 섹시하십니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부장님, 엄지 척입니다.
김 부장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커피나 한 잔 하고 출근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딸아이도 옆자리에 와 앉았다.

아내는 머리에 잔뜩 롤을 만 채로 달려왔다.
"레인지에서 꺼내 먹으라니까. 어쩜 둘이 그렇게 판박이냐."
아내는 잔소리를 쏟아내면서도 레인지에서 햄버거를 꺼내어 두 사람 앞에 놓아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화장대로 뛰어간다. 머리 말고 화장하느라 아내는 늘 아침을 거른다.

"헉! 야!"
김 부장이 버럭 소리 질렀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딸아이가 케첩 그릇을 엎었다. 그것도 윤기 자르르한 새 슈트에.
놀란 그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케첩이 바지에까지 흘러내렸다.
새 슈트는 케첩을 뒤집어쓰고 붉은 폭탄이 됐다.
"너, 너… 이게 뭐야!"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놀란 딸아이가 벌떡 일어섰다.
벌서듯 떨며 케첩 범벅이 된 아빠를, 아빠의 새 슈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내가 뛰어왔다.
"어머나, 여보. 움직이지 마. 닦아내야겠다."
"닦긴 뭘 닦아. 이미 다 버렸는데."
"가만있어봐요. 더 흐르잖아."
"기집애가 조심성이라곤 없어."
겁먹은 얼굴로 서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뭘 잘했다고 울어?"
김 부장이 빽 소리를 질렀다. 우는 아이를 보니 더 화가 났다.
"당신 왜 욕은 하고 그래?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아내가 거들고 나섰다.
아니, 이게 거들 일인가?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래도 다행히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잖아도 며칠 전부터 아내와 딸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었다.
'상 두 번만 탔다가는 양복점 차리겠네.' 사실 딸도 첼로 연주로 여러 번 수상했고,
아내도 실적 우수 사원으로 포상금을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 조심성 없다는 게 욕이야?"
김 부장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상스럽게…."

아내가 뒷말을 삼켰다.
뜨끔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혼잣말인 듯 하시던 말이 떠올랐다.
'기집애한테 돈 처들여봤자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기집애'는 욕이다. 그것도 여성 비하, 아들 선호의 상징 언어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병실에서까지 아들 하나 낳으라고 아내에게 대놓고 스트레스를 주셨다.
지금 아내는 어머니께 당한 구박을 나한테 퍼붓고 있다. 게다가 자기네 부모와 내 어머니를 비교하고 있다.
장인, 장모는 모두 교사 출신이고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겨우 다닌 촌사람이다. 그래, 불에 기름을 붓는구나.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김 부장의 고함 소리에 놀란 아이가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아내가 노려보았다. 머리에 잔뜩 롤을 말고 있어서 뿔난 마녀 같다. 순간 위기를 느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어머니 얘기로까지 튀었다가는 감당 못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김 부장은 얼른 방향을 틀었다.
"당신도 그래. 케첩을 병째 놓지 왜 그릇에 덜어놓는 거야?"
"그래, 다 내 탓이다. 먹기 좋게 덜어놓은 것도 잘못이야?"
"유난 떨어서 좋을 게 없단 얘기야."
아내가 멈칫했다. 알아들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김 부장은 장모에게 은근히 당한 무시를 아내에게 되쏘고는 통쾌했다.
아내와 장모에게 동시에 펀치를 날린 기분이다.
장모가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젊고 예쁘고 교양도 있는 노친네이기는 하다. 그래서 더 화가 치민다.
그 교양 있는 장모 때문에 첼로 하는 딸아이가 팔목을 삐었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연주자로서
핸디캡이 될까 봐 아내는 노심초사했다. 의사가 하라고도 하지 않은 손목 깁스를 일주일이나 시켰다.
딸아이만 깁스를 한 것은 아니다. 장모는 지금까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문밖 출입도 못 한다.
못 해서가 아니라 자기 꼴 남 보이기 싫어서겠지만.
지난 토요일에 장모가 무려 30만 원인가 한다는 로열석 표를 예매해서 딸아이를 음악회에 데리고 갔다.
음악 하는 아이니까 시야를 넓혀야 한다나 뭐라나. 음악당 돌계단 틈틈이 얼음이 남아 있었나 보다.
먼저 장모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할머니를 잡으려던 아이가 손목을 삐끗하고.
노친네가 유난스레 고상 떨고 있는 척하다가 쌤통이다.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울면 다야. 여자들은 할 말 없으면 울더라. 딸이나 아내나 여자들이란 다 저렇다니까.
김 부장은 발소리도 요란하게 방으로 갔다. 옷 갈아입고 출근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커다란 첼로가 현관 문턱에 누워 있었다. 통학 버스가 지나간 지 10분이나 지났다.
악기가 커서 일반 버스로는 학교에 가기 힘들다. 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뿌루퉁하니 서 있다.
김 부장은 아이를 떠밀다시피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시동을 걸면서 시간 계산하느라 머릿속이 바쁘다.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서 회사 도착…
막히지만 않는다면 어찌어찌 지각을 면할 수도 있지 싶었다. 김 부장은 속도를 높였다.
60km 구간을 80km로 달린다. 운이 좋다.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달리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도 있겠는걸,
하는 순간 까만 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며 정지 신호를 보낸다.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음주 단속하는 사복 경찰에게 걸렸다는 걸.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벌금 딱지 떼이고, 주의 받고,
다시 출발하는 동안 13분이나 지체되었다. 그러는 동안 부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학교에 도착했지만 이미 지각이다. 아이는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힘겹게 첼로를 껴안고
허둥지둥 뛰어 들어갔다.
김 부장은 거의 한 시간이나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
하필 상도 받고 좋은 날에 지각이라니. 오늘은 아무리 칼 같은 국장이라도 좀 봐주겠지.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다가 어떤 직감으로 지퍼를 열었다. 텅 비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작성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이다. 맥이 풀렸다. 지금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는 동안 칼국장의 지시를 받은 박 과장이 전화하겠지. 뭐라고 둘러대나.

김 부장은 차에 앉아서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되짚어보았다.
그놈의 케첩이 발단이었다. 케첩만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아니야. 아이가 문제지.
조심성 없이 케첩을 옷에 쏟으면서 재앙이 시작되었어. 아니지. 아내가 원인 제공자야. 그게 더 문제야.
아침부터 무슨 햄버거냔 말이지. 게다가 무슨 손님상 차림도 아닌데 예쁜 그릇에 케첩을 담아서 줘.
지 엄마 닮아서 고상 떠는 거지.
원망이 멈추지를 않는다. 딱지 뗀 경찰관도 그래. 아침부터 웬 음주 단속? 일반 승용차 타고
사복 차림으로 다가와서는 '과속하셨습니다'.
사기도 아니고, 함정 아냐? 그깟 딱지야 떼도 할 수 없다지만 왜 13분이나 걸리느냐고.
"일 좀 빨랑빨랑 못 해!" 마치 경찰관이 앞에 있기라도 하듯 소리까지 질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역시 박 과장이다.
"응, 박 과장."
"부장님, 어디세요?"
"차 안이야."
"어디, 요?"
"차 안이라고."
"아… 네에…."
"국장님 화 많이 나셨지?"
매사에 칼 같은 국장이 뭐라고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만 해도 기록이다.
"국장님이 전화하지 말랬는데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응. 아니. 정말 국장님이 그러셨어? 전화하지 말라고?"

"네. 오늘 같은 날 늦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혹시 사고… 아니에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 알았어. 곧 도착할 거야."
김 부장은 시동을 걸고 핸들을 힘차게 틀었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오려면 진짜 서둘러야 한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텅 비었다. 김 부장은 빈자리들을 지나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 현관 번호를 세 번이나 틀렸다. 네 번째에 간신히 문이 열렸다.
텅 빈 집 안에 아침 햇살만 가득하다. 김 부장은 너무 피곤하여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이미 시상식은 시작됐다. 시상식이라고 해도 규모가 크지는 않다. 시간도 길지 않을 테고.
제아무리 날아간다 해도 행사 시작 전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하다. 설사 도착한다 해도 그렇다.
수상자가 지각이라니. 그것도 멀쩡한 몸으로. 차라리 참석 안 하는 게 낫겠다. 내일은 딸아이가 하던 깁스라도 팔에 두르고 출근해야겠다. 그는 새 슈트가 걸려 있던 빈 옷걸이를 바라보다가 언제인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

●

김 부장은 눈 뜨자마자 옷걸이에 소중히 걸어둔 새 슈트를 바라보았다.
은은한 회색 바탕에 보일 듯 말 듯 자주색 잔 줄무늬가 들어간 세련된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든다.
난생 처음 이름난 명장의 양복점에서 정장을 맞추었다. 옷태 폭발이다. 땡처리 하는 기성복이 딱 돈만큼 하듯 역시 괜히 명품이 아니었구나. 더는 참을 수 없어진 그가 벌떡 일어나 팬티 바람으로 상의를 입었다.
어깨에 패드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가슴 부분도 약간 두툼한 것이 당당해 보인다.
양팔을 90도 정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상 받는 포즈를 여러 번 취해본다. 팔의 움직임에 따라 옷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오늘 이 멋진 슈트를 입고 전 직원 앞에서 상을 받는단 말이지.
위 아 더 챔피언, 마이 프렌즈 –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샤워를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새 슈트를 빼입고 식당으로 간다.

"오늘은 햄버거야. 땡 소리 나면 각자 레인지에서 꺼내 먹어."
아내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면서 소리 질렀다. 딸아이가 옆자리에 와 앉았다.
아내가 잔뜩 롤을 만 채로 달려왔다.
"레인지에서 꺼내 먹으라니까. 어쩜 둘이 그렇게 판박이냐."
잔소리를 쏟아내면서도 아내는 레인지에서 햄버거를 꺼내어 두 사람 앞에 놓아주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딸아이가 케첩 그릇을 엎었다. 그것도 윤기 자르르한 새 슈트에.
놀란 그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케첩이 바지에까지 흘러내렸다. 새 슈트는 순식간에 붉은 폭탄이 됐다.
놀란 딸아이가 케첩 범벅이 된 아빠를, 아빠의 새 슈트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김 부장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말했다.

"울긴.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딸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왜? 무슨 일이야?"
아내가 뛰어왔다.
"어머나, 여보. 움직이지 마. 닦아내야겠다."
"응.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일단 좀 닦아줘."
김 부장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만 뚝. 아빠 괜찮아. 아빠 옷 많다."
아이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 수상식 옷인데… 정말 미안해."
"수상식 옷? 그럼 아빠 이대로 가서 상 받을까?"
"아빠도 참…. 수상 축하해요, 아빠."
눈물범벅인 얼굴로 아이가 웃었다.
"그래, 여보. 수상 축하해. 정말 애썼어요."
아내가 케첩투성이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어, 왜 이래. 누가 보면 피 터지게 싸운 줄 알겠어."
머리에 잔뜩 롤을 말고 있어서 뿔난 마녀 같은 아내가 웃었다.
"얼른 가서 옷 갈아입어요. 당신은 워낙 옷걸이가 좋아서 뭘 입어도 멋있어."
아내가 케첩투성이 손으로 그의 어깨를 툭, 툭, 건드렸다.
"얼른 가서 찬물로 세수해. 이쁜 얼굴 붓겠다." 아내가 아이를 달랬다.
김 부장은 어제 입었던 감색 슈트를 입었다. 그래, 상 탄다고 새 옷 입고 가는 것도 좀 그래.
현관에서 딸아이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 멋진데, 우리 신랑. 새신랑 같네."
아내가 넥타이를 바로잡아주었다.
딸이 멋쩍은 얼굴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세 식구는 나란히 현관을 나와 각자 흩어졌다.
통학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딸이 김 부장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분수대 앞에서 막 도착한 회사 버스에 오르던 아내가 내려서서 손하트를 날렸다. 김 부장은 두 여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라디오를 켰다. 늘 듣는 아침 프로그램의 귀에 익은 시그널이 흘러나왔다.

-굿모닝? 오늘 아침 기분 어떠세요?
"굿모닝입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다.
-저도 굿모닝입니다. 실은 방금 전 아침에 우리 딸이 제 옷에 커피를 쏟았지 뭐예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타이르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근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피를 엎질렀을 때, 내가 화내고 혼을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도, 나도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죠. 아이는 울고불고 학교 안 가고, 아이 편드는 남편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늦어서 과속으로 딱지 떼고, 방송 스크립트도 안 가지고 와서 애드리브 하느라고 진땀을 뺐어요.
사실 방송 사고지요. 정말 아찔한 하루였어요. 시작은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나 끝은 정반대가 됐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차가 고장 나고, 비행기가 연착해서 계약이 파기되고,
어떤 차가 느닷없이 끼어들어 사고를 당하고, 때론 회복하기 어려운 큰 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그때 중요한 건 바로 태도입니다.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지니까요.
어느 현명한 분이 그랬다죠. '인생은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90%는
그 사건에 내가 반응한 행동들이다.' 그러니까 10% 때문에 90%를 망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겠지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백 퍼 이해합니다."
김 부장은 DJ와 대화라도 하듯 대답했다.
까만 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며 정지 신호를 보냈다.
음주 단속하는 사복 경찰이다. 옆 차선을 과속으로 달리던 차가 길가로 붙어 섰다. 김 부장이 피식 웃었다.
이제 저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벌금 딱지 떼이고, 주의 받고, 다시 출발하는 동안 13분이나
지체될 것이다. 운전자는 기분이 나빠서 오늘 하루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90, 아니, 100%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굿모닝', 그렇게 시작하세요. 기분 좋은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요즘 핫한 퀸의 노래입니다.
위 아 더 챔피언! We are the champions!
김 부장이 목청껏 따라 불렀다.
단 5초 정도의 좋은 반응으로 나는 오늘 승리했다. 딸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내에게서 칭찬받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지켰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봤자 맘 상하고 가족과 멀어지고 하루를, 아니, 인생을 망칠 뿐이니까.
김 부장이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다.

위 아 더 챔피언! 위 아 더 챔피언!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패배자를 위한 시간은 없어 No time for losers
우리는 이 세상의 챔피언이니까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58 **Zoom In**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60 **Interview**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 박양빈

64 **Zoom In**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

66 **Academy**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현대무용-I can dance!〉

69 **SNART News**
재단뉴스

74 **Calendar**
캘린더

INSIDE SEONG-NAM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역사를 담다, 미래를 바라보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대략 어떤 인물들이 떠오를까? 교과서에서, 역사책에서,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익숙한 대표적인 위인들의 이름이 먼저 기억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만이 전부일까?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49년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무려 1만5,180명에 이른다. 모두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노력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까. 성남문화재단은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들의 삶의 궤적을 오늘에 다시 꺼내놓고, 잊히고 지워진 그들의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2019년 올해는 3·1만세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하다. 어쩌면 독립운동가 웹툰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인 셈이다.

왜 웹툰인가

왜 웹툰이어야 할까? 만화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긴 시간 대중과 소통해 온 문화콘텐츠로 불린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가장 대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에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 만화인들이 선뜻 참여를 약속했다. 〈타짜〉 〈식객〉 〈오! 한강〉으로 사랑받아온 허영만 작가는 조선의열단을 이끌었던 약산 김원봉의 웹툰 제작에 나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영화 〈암살〉에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라는 대사로, 배우 조승우가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겼던 바로 그 인물이다. 성남에 살고 있는 허영만 작가는 작가 이전에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프로젝트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외에도 역사를 소재로 한 순정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바람의 나라〉 김진 작가,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풀〉의 김금숙 작가, 용산참사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만화로 그려온 김성희 작가, 인혁당 사형수 이야기 등 근현대사의 아픔을 주로 그려온 박건웅 작가 등 개성이 뚜렷한 30여 명의 만화인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로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명할 예정이다.

01

성남문화재단은 독립운동가 소재 웹툰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역사학자와 만화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역사 고증과 콘텐츠 자문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독립운동가 선정과 작가 선정을 위한 1차 자문위원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4월에는 재단 주도로 만화가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임시정부 수립지 해외답사 프로그램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민족의 치열한 역사가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작품에 생생함을 더한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남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남상목, 이명하, 윤치장, 한백봉 등을 조명, 성남 청소년들에게 지역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알리는 특별한 교육 자료로도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웹툰 제작의 상당 부분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에 성남시가 지원한 독립운동가 웹툰이 연재된다. 국가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 성남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제공에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성남,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이미 국내 만화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 지자체가 공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스토리 작가를 포함해 무려 50여 명의 웹툰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웹툰 단일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국가 탄생 100주년을 맞는 올 한 해, 독립운동가 웹툰 창작지원 활동 외에도 만화계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성남시 곳곳을 시민참여형 축제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3월에는 주요 웹툰 작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운동가 캐릭터전과 문화공연·전시축제 행사가 이어지고, 8월에는 유명 만화인들이 참여하는 카툰전, 웹툰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웹툰 공모전도 기획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올해 웹툰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역사를 기록하고 공공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ICT 기술과 웹툰 콘텐츠를 결합시킨 OSMU[one source multi use]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성남시 도시브랜드 구축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만화 단체 추천을 받아 관련 실무를 총괄할 실무단도 구성했다. 20년 이상 만화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이도헌 작가가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기획총괄을 맡는다.

흔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계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지역특성화 문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라의 탄생 100년, 미래 국가로의 100년이 지금 성남시에서 시작된다.

02

01
지난 12월 26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간담회 현장.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재호 성남시의원, 만화가 허영만 작가, 김진 작가 등 참여 작가들과 실무진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02
간담회에 참여한 허영만 작가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글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실무단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 박양빈

거리에서 발견한 일상의 특별함

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소통하고,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프로젝트 〈장미와 미미: 커뮤니티의 안과 밖에서〉는 창작소 1기 입주작가들이 지역 안팎에서 바라본 풍경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구성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다양한 작업 속에서 이주와 경계,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해온 박양빈 작가는 신흥동 곳곳의 일상에서 발견한 지역의 사회상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코드들을 발견하고 수집한다. 2월 2일까지 신흥공공예술창작소에서 진행 중인 작가의 전시 〈Neighborhood Collection〉은 바로 그 관찰의 기록이다.

©조자룡

신흥공공예술창작소에서 진행된 박양빈 작가의 전시 〈Neighhood Collection〉

©최재우 박양빈 작가

성남 신흥동의 경사진 길목에는 낡은 건물들이 촘촘이 자리해 있다. 넉넉지 않은 좁은 골목 탓에 보행자도, 자동차 운전자도 서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 이러한 이유로 박양빈 작가 역시 자택인 화곡동에서 창작소가 있는 신흥동을 오갈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한다. 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지만 신흥동에서는 오히려 그편이 낫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때로는 긴 시간 서서 오기도 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지만, 어느새 수고로움은 박양빈 작가에게 새로운 시각이 되어주었다.

"창작소에서 가까운 역이 8호선 신흥역이에요. 근데 역에서 창작소까지도 거리가 좀 돼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구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못 보는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는 거리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빨간색의 컬러콘에서부터 문 닫힌 상점, 전봇대 한편에 배출된 쓰레기까지.

그렇게 카메라에 동네를 담아가는 동안, 그는 신흥동에서 반복되는 풍경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되었고, 삶의 조건에 의해 생성된 신흥동의 풍경이었다.

개인과 공공의 연결

〈Neighborhood Collection〉전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바라본 신흥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창작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슈퍼마켓 형태의 전시 공간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 여느 슈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낵과 세제, 음료 등이 매대를 채운다.

"제가 입주할 때부터 동네를 다니면서 눈길이 많이 갔던 곳이 상점이었어요. 이 작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할 만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수의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았어요. 새로운 상점이 들어서는

글 고민주 객원기자 사진 조자룡, 최재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닫힌 채로 방치되더라고요."
내일이면 사라져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오늘 지나쳤던 상점도 새롭게 보였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슈퍼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획되었다. 하지만 작가는 신흥동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 슈퍼마켓 대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전시해 동네 상점의 축소판을 재현했다.
"여기서 보이는 물건들은 한국의 다른 도시, 타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동시에 그 물건은 이 지역의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 신흥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발견할 수 있는 컬러콘은 구역을 선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좁은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컬러콘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미리 표시하는 거죠. 이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지역적인 현상인데,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에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컬러콘은 신흥동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사용되잖아요. 로컬인 동시에 글로벌인 거죠. 저는 지역과 일반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작가는 처음에 신흥동의 특징,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둘러보았지만 결국은 지역과 지역, 그리고 사회가 얼마만큼 닮아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방인에서 주민으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자들에게 창작 스튜디오 공간 외에도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비와 창작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양빈 작가는 이 같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이 해외의 사례와 견주어 봐도 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1년 계약형 레지던시에 있었어요. 해외도 레지던시마다 특징과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

박양빈 작가가 일상에서 발견한 신흥동의 풍경

©조자룡

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신흥공공예술창작소의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작가는 창작소에 입주하게 되어 가장 좋았던 점은 '전철을 타면서 많이 걷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작소를 오가고, 신흥동 동네 곳곳을 걷고 바라보던 순간들 모두가 작가로서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 셈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매일 지나치는 거리일지라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항상 목적지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작가는 이 같은 의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이 20년 넘게 살았던 동네보다 1년 동안 오갔던 신흥동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전시 〈Neighborhood Collection〉을 통해 신흥동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를 바라봄으로써 예술을 좀 더 가깝게 느끼길 바랐다. 더불어 일부 전시에 놓인 퍼즐, 슬라임, 토끼모자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해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곳에 자주 오는 동네 아이들이 있어요. 작품을 감상하러 온다기보다는 무료함을 달래러 오는 건데, 그 친구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서 어느새 동네와 동화된 신흥동 주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창작소의 전시 공간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다른 미술 세계가 아닌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자신을 이방인이 아닌 '신흥동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네 주민'으로 느껴주길 바란다는 소망도 전했다. 박양빈 작가는 남은 입주 기간에도 '예술로서의 지도'를 통해 경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관찰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양빈 작가는 한국에서 섬유미술을 공부한 후 미국으로 유학, 시카고 예술학교(BFA)와 템플대 타일러 스쿨오브아트(MFA)에서 회화와 판화를 전공했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개최하거나 참여했으며, 주요 전시로는 〈Documentary, Diary, and Dream〉(Temple Contemporary, 2013, 미국), 〈I Wasn't Doing Nothing〉(40th Street A.I.R Gallery, 2014, 미국), 〈The Cover Story〉(사이아트스페이스, 2015), 〈My Pilgrimage〉(한가람미술관, 2017), 〈Not Your Playground〉(가고시포갤러리, 2018) 등이 있다.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 온라인 접수 www.snmedia.or.kr ⇒ 미디어교육 ⇒ 신청하기
• 방문 접수 성남미디어센터 안내데스크 (홈페이지 가입 필수)
• 교육 문의 031-724-8370
화~금 10:00~22:00
월, 토 10:00~18:00 / 일요일 · 공휴일 휴관

분야	교육명	강사명	일정	요일	시간	차시	수강료
사진	[기초, 연간] 사진교육 A to Z_시리즈 강좌*						
	사진교육 A to Z (1)_사진 촬영의 이해	이성흔	3.14~6.30	목	10:00~12:30	12	144,000
	사진교육 A to Z (2)_사진 예술의 이해		6.20~7.25	목	10:00~12:30	6	72,000
	사진교육 A to Z (3)_사진 표현의 이해		8.29~11.28	목	10:00~12:30	12	144,000
	[심화, 연간] 사진교육 A to Z+_시리즈 강좌*						
	사진교육 A to Z+ (1)_나만의 포트폴리오 제작하기A	이영준	3.14~6.30	목	19:00~21:30	12	144,000
	사진교육 A to Z+ (2)_사진 편집의 이해		6.20~7.25	목	19:00~21:30	6	72,000
	사진교육 A to Z+ (3)_나만의 포트폴리오 제작하기B		8.29~11.28	목	19:00~21:30	12	144,000
	현대사진 작품의 이해 : 스토리텔러와 사기꾼 그리고 미치광이	박호식	3.6~4.24	수	19:00~21:30	8	96,000
	스튜디오에서 배우는 인물사진	배인희	5.4~7.23	화	19:00~21:30	8	96,000
	흑백사진 디자인 워크숍	배인환	11.5~12.3	화	19:00~21:30	5	60,000
영상	어서와 유튜브는 처음이지?	김성일	1.15~1.24	화, 목	19:00~21:30	4	60,000
	어서와 유튜브는 처음이지?		4.16~4.25	화, 목	19:00~21:30	4	60,000
	어서와 유튜브는 처음이지?		7.16~7.25	화, 목	19:00~21:30	4	60,000
	어서와 유튜브는 처음이지?		10.15~10.24	화, 목	19:00~21:30	4	60,000
	DSLR 카메라 100배 즐기기	김상일	5.7~5.30	화, 목	19:00~21:30	8	96,000
	DSLR 카메라 100배 즐기기		11.5~11.28	화, 목	19:00~21:30	8	96,000
	[illegible]						
	Part 1.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여행 동영상 만들기 (기초)	서승일	3.6~4.10	수	19:00~21:30	6	72,000
	Part 2. 내 여행 동영상 업그레이드하기 (중급)	서승일	5.8~6.26	수	19:00~21:30	8	96,000
	Part 3. 내 인생의 여행 동영상 도전하기 (고급)	서승일	7.10~8.28	수	19:00~21:30	8	96,000

분야	교육명	강사명	일정	요일	시간	차시	수강료
편집기술	2주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프로 CS6	손현준	2.13~2.22	수~금	19:00~21:30	6	72,000
	2주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프로 CS6		5.22~5.31	수~금	19:00~21:30	6	72,000
	2주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프로 CS6		8.19~8.27	수~금	19:00~21:30	6	72,000
	고급편집 : 편집이론 + 편집 (프리미어 프로 CS6)	손현준	2.26~3.14	화, 목	19:00~21:30	6	72,000
	고급편집 : 편집이론 + 편집 (프리미어 프로 CS6)		6.11~6.27	화, 목	19:00~21:30	6	72,000
	고급편집 : 편집이론 + 편집 (프리미어 프로 CS6)		10.8~10.24	화, 목	19:00~21:30	6	72,000
	목표달성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초보 탈출	이현니	3.6~4.10	수	19:00~21:30	6	72,000
	예제로 배우는 애프터이펙트(기초)	김남수	3.19~4.23	화	19:00~21:30	6	72,000
	예제로 배우는 애프터이펙트(기초)		10.30~12.4	수	19:00~21:30	6	72,000
	초보도 한다! 망친 사진 살리는 라이트룸과 포토샵	배진환	3.21~4.11	목	19:00~21:30	4	48,000
창작영화이론	[전문] 영화소설 창작교실	이재진	3.7~6.27	목	19:00~21:30	16	240,000
	[전문] 단편 시나리오 창작교실	이재진	7.11~11.14	목	19:00~21:30	16	240,000
	[illegible]						
	2017~2018년 흥행한 세계의 걸작영화 돌아보기	조세영	3.6~4.10	수	19:00~21:30	6	72,000
	영화는 스토리가 아니다_비쥬얼 스토리	조세영	5.1~6.25	화	19:00~21:30	8	96,000
	마음을 움직이는 카메라무빙과 몽타주	조세영	7.3~8.21	수	19:00~21:30	8	96,000
소리	팟캐스트 제작 '수다는 콘텐츠가 되다'	이경록	3.8~3.29	금	19:00~21:30	4	48,000
	팟캐스트 제작 '수다는 콘텐츠가 되다'		7.6~7.27	토		4	48,000
	그림책 미디어를 만나다	이연승	3.22~4.26	금	19:00~21:00	6	72,000
	1인 라디오	김소영	5.15~6.19	수	19:00~21:00	6	72,000
기타	스토리보드 드로잉	이정현	3.2~4.27	토	10:00~13:00	9	135,000
	디지털 페이퍼_인물 일러스트 제작편	이지수	3.9~4.6	토	14:00~17:00	5	60,000
	노아영의 디지털 캘리그라피	김미정	3.29~5.17	금	19:00~21:30	8	96,000
특강	감독과 음악감독이 말하는 사운드연출과 음악제작	조세영 윤성혁	1.12 / 1.19	토	14:00~16:30	2	30,000
	단편 다큐 제작 워크숍	조세현	2.9~7.29	화, 토	10:00~17:00	6	200,000
			3.2	토	14:00~17:00	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외 추가 일정, 방학특강 미디어스쿨 등은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교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1-724-8370 (안내) www.snmedia.or.kr @snmediacenter www.facebook.com/seongnammedia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번지 성남미디어센터(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마을 커뮤니티 지원사업: 스페이스 블록스

예술로 피어나는 마을

문화예술을 통해 마을을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open space BLOCK's'가 문을 열었다. 미술 전시, 글쓰기와 인문학, 커피 강좌 등 다양한 콘텐츠로 태평동의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가던 블록스는 2018년 〈청년_물반디〉 사업을 기획해 태평동 지역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지난 연말에는 구성원이 함께 만든 제작물을 블록스에 전시하며 마을 주민들과 한 해를 마무리했다.
빼곡하게 늘어선 주택가 골목길 사이에 자리한 블록스는 오늘도 주민을 맞으며 다채로운 이웃의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다.

2016년 8월 성남문화재단 〈마을공간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오픈 스페이스 블록스(이하 블록스)'는 지역의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이다. 블록스의 김은영 대표는 지난 3년간 〈홈 바리스타 교실〉〈글쓰기 강좌〉 〈골목으로 들어온 미술〉 〈숯골 에코밸리 커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며 태평동에 새로운 문화 플랫폼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태평동 어린이들과 작가들이 함께 그린 그림을 마을 골목에 설치한 〈숯골 에코밸리 커튼〉은 지난해 지역 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과 하나 된 문화콘텐츠의 롤모델이 되었다. 2018년에는 성남문화재단의 마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_물반디〉 프로젝트를 뜻깊게 마무리하며 태평동의 문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다져가는 중이다. 그러나 지금의 블록스가 있기까지 김은영 대표는 많은 고민과 자기 검열을 거듭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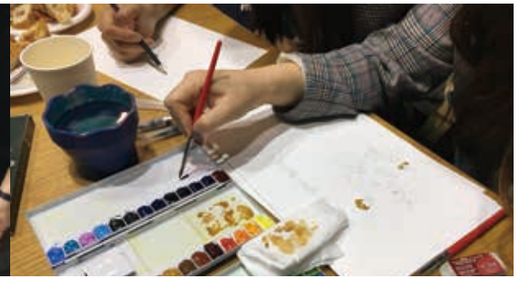
"블록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이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였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 제가 먼저 마을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블록스 공간을 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은영 대표는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태평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마을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며 동네 어르신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었다. 블록스 건물 전면은 골목을 지나는 누구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통유리로 설계했다. 여기에는 마을 주민들을 향해 언제나 열린 공간이고 싶은 블록스와 김은영 대표의 바람이 녹아 있다.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청년_물반디〉

지난해 블록스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마을과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커뮤니티 모임 〈청년_물반디〉를 결성했다.

"〈청년_물반디〉의 궁극적인 목적은 태평동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근처에 가천대학교가 있어서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환 학생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여기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도 동네가 그저 잠자는 공간 이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죠."



지역 청년들과 함께한 〈청년_물반디〉 프로젝트 현장

글 고민주 객원기자 사진 제공 김은영

김은영 대표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속에 이웃과 마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을보드놀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블루마블' '젬블로' '루미큐브'와 같은 게임 원리에 마을 콘텐츠를 결합해 '태평동 마을보드놀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소통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며 마을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돌아본다는 목표였다.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낀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마을보드놀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물반디의 구성원이 되어 친목을 다져갔다. 하지만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게임 개발 단계에서 멤버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자 모임 참여가 서서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은영 대표와 멤버들은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 '일상을 드로잉'하는 것으로 목적성과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모임을 이어갔다. 프로젝트 결과물로 멤버들이 손수 그린 드로잉 북 『닮은 요일』을 완성했고, 지난 연말에는 전시를 열어 마을 주민들과 그동안의 여정을 공유했다. 김은영 대표는 〈청년_물반디〉를 통해 커뮤니티 모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제 나름대로의 기획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구성원들이었어요. 청년들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커뮤니티 모임의 자생적인 발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구성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방향을 만들어간 모든 시간이 성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모두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모임의 장을 열어주고 버팀목 역할에 집중하려 합니다."

모두를 위한 기다림

블록스에서는 〈골목으로 들어온 미술〉이라는 주제의 작은 전시회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생업에 바빠 미술관 등 문화 공간을 찾을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해, 블록스 공간에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해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술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왔다.

"작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했더라도, 관객이 감상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작품을 대하는 주민들의 참신한 시각, 다양한 표현에 저 역시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동안 여러 요인 때문에 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도, 마음속 어딘가에 응축되었던 예술에 대한 갈망이나 취향이 또 다른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요."

물론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예술을 친근하게 느끼며 표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처음 공간을 개소했을 때는 주민들이 창 너머로 안쪽을 바라보기만 하고 선뜻 들어오지는 못하셨어요. 여기가 어떤 공간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차츰 알게 되면서 주민들도 조금씩 편하게 다가와주셨죠."

김은영 대표는 블록스 공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 마을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왔듯 문화예술사업 역시 기다림과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화예술은 단번에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 그 결과가 선명한 수치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관람객마다 작품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간과 반응이 다른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사업들도 지역사회에 서서히 다가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죠. 그런 점에서 1년 단위로 공모, 진행되는 공공기관의 대다수 지원 프로그램들은 감사한 만큼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역에 다가설 수 있도록, 지속성에 대한 고민과 배려를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방인〉, 백주미 안무 및 출연

다방면의 수준 높은 예술 강좌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 학기제 운영을 통한 꼼꼼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교육 기관으로 신뢰를 쌓아온 아카데미가 2019년 1학기 강좌를 시작했다.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새롭게 선보이는 가운데, 무용가 백주미의 〈현대무용-I can dance!〉가 현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일상 속 활력을 선사한다.

지난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친숙하게 인용된 키워드는 바로 '소확행小確幸'과 '워라밸'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트렌드를 따라,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가꿔가는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월요일 저녁 강좌로 편성한 〈현대무용-I can dance!〉 역시 무용 예술의 한 장르인 현대무용을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체력과 활력, 표현력과 자존감 상승까지 고루 기대할 수 있는 강좌다.

"현대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일반인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현대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춤추는 데 자신이 없어요' '신나는 일상을 느끼고 싶어요' '자존감을 찾고 싶어요' 등 춤이나 자기계발에 관한 많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다양한 메소드의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알아가기, 자유롭게 몸으로 표현하기를 배우고, 동적·정적인 무용 움직임을 기반으로 신체와 정신, 사회적 건강까지 증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강의를 맡은 무용가 백주미(경희대 공연예술학과 무용학 박사)는 대학 및 대학원 석박사를 현대무용과 무용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무용가다. 무바트 컴퍼니MOV'ART Company라는 개인 프로젝트 공연 활동은 물론, 여러 예술대학과 예술고, 콘서바토리에서 무용의 다양한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있다. 나루아트센터 상주단체 단원 시절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현대무용, 노년층 대상 움직임 수업을 진행하며 대중과 현대무용의 친근한 접점을 찾는 과정을 고민하기도 했다. 스스로 몸치라고 느끼는 이들, 강좌에 관심은 있지만 혼자 뒤처질까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의 망설임을 그만큼 잘 이해한다는 뜻이다.

"현대무용은 꼭 몸이 유연하거나 원래 춤을 잘 추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무용수처럼 다리를 높이 들거나 턴을 잘 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고,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맞춤 수업이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들 신나고 즐거우면 춤이 절로 추어지죠? '사람은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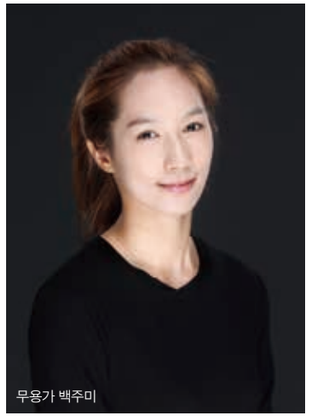
주 1회, 총 20회 동안 진행되는 〈현대무용-I can dance!〉는 현대무용의 기본 움직임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을 시작으로, 공간 속에서의 다양한 움직임과 감정 표현, 클래식과 재즈와 팝 등 음악에 맞춘 무용 안무, 자신만의 춤 만들기까지 다채로운 구성이 펼쳐진다. 몸의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동작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이어트는 물론 체력 관리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여자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 비법으로 현대무용이 종종 언급되는 이유다.

"현대무용 역시 동적인 움직임을 통한 운동 효과가 커요. 필라테스, 발레 핏처럼 신체 건강과 아름다움 증진에도 도움이 되죠. 여기에 현대무용만의 또 다른 강점은, 무언가를 몸으로 표현하기 위한 '생각'과 '상상'의 과정 속에서 정신적, 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배려심과 사회성을 키우는 효과도 있죠."

감상도, 움직임도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성남아트센터는 그동안 현대무용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의 〈헤테로토피아〉, 올리비에 뒤부아와 발레 뒤 노르 컴퍼니 〈비극〉 등 세계 현대무용계의 화제작을 선보여왔다. 현대무용의 기초를 직접 배우는 아카데미 강좌와는 별개로, 무용 예술과 그 감상에 대한 궁금증을 지닌 초보 관객들의 궁금증도 상당하다. '현대무용 공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선에 대해 백주미 강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무대를 바라보라'는 거죠. 무용은 연극처럼 언어가 등장하는 예술이 아닌, 기본적으로는 '무언극'이거든요. 대다수 관객들은 현대무용의 동작마다 '저 동작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 하고 해석하려 하시는데, 명확한 언어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답답해하거나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너무 많은 분석보다는 추상화를 감상하듯 한 걸음 물러서서 편안하게 작품을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공연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사랑'이 떠올랐다거나, '외로움'을 느꼈다거나, 공연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감정도, 생각도 좋아요. 무언가 한 가지 자신의 마음속에 문득 남는 게 있다면 그 현대무용 공연을 잘 감상하신 거죠. 이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용가 백주미

백주미 강사가 생각하는 '무용' 그리고 무용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는 "무용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정의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춤을 출 수 있고, 그 움직임은 늘 우리 일상에 펼쳐져 있어요. 기쁘고 신날 때 다 함께 손을 잡고 돌거나 얼싸안고 춤을 추는 모습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걷고 기지개를 켜고 머리를 마구 말리는 사소한 동작들 역시 일상 속에서 '춤추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춤을 추는 자신을 통해 내가 세상에 존재함을 알고 더 나아가 모두가 하나 되어 소통하는 데 좋은 역할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무용의 가장 큰 가치라 생각합니다."

백주미 강사는 올 한 해 현재 활동 중인 무용단의 지방 투어, 안무가 백주미로서의 개인 작업, 솔로 안무작의 국내외 페스티벌 출품 등에도 몰두하며 무용가와 안무가로서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춤의 즐거움을 알리는 작업 역시 상반기 목표 중 하나다.

"춤으로 삶의 활기와 행복을 느끼는 법, 내가 춤추고 움직임으로써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법, 이 즐거움을 강좌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사진 제공 **백주미**

수강 문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T. 031.783.8156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무용학회 '올해의 예덕상' 수상

©이강민

성남문화재단 박명숙 대표이사가 1월 21일 한국무용학회(회장 김제영)에서 '올해의 예덕상'을 수상했다. 무용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통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무용학회는 1월 21일(월) 중앙대학교에서 2019 한국무용학회 정기총회 및 시상식을 가졌다.

박명숙 대표이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3대 한국무용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2015년까지 34년간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인재를 양성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박명숙 대표이사는 "현대무용가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이런 소중한 순간을 맞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행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감상·이론 강좌 개강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가 2019년 1학기에도 음악과 미술 분야의 다양한 감상·이론 강좌를 준비했다. 하피스트 노영아의 〈알쓸클음-알아두면 쓸데 있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2월 18일 오픈 특강, 2월 25일 개강), 오페라 평론가 황지원의 〈오페라 로열박스〉(3월 5일 오픈 특강, 3월 12일 개강), 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최정주 회장의 〈아트 앤 뮤직 큐레이션〉(2월 19일 오픈 특강, 2월 26일 개강), 윤우학 충북대 교수의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가는 서양미술사〉(2월 27일 오픈 특강, 3월 6일 개강), 음악 칼럼니스트 황장원의 〈클래식 포레스트: 베를리오즈, 말러, 슈트라우스〉(3월 7일 오픈 특강, 3월 14일 개강), 음악 평론가 서남준의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그리고 탱고 문화사〉(2월 28일 오픈 특강, 3월 7일 개강), 작곡가 김상헌의 〈즐거운 클래식 감상: 클래식 음악사의 결정적인 순간들〉(3월 8일 오픈 특강, 3월 15일 개강)까지, 오랫동안 아카데미에서 사랑받아온 명강사들의 해설 강좌가 2019년에도 예술의 다채로운 면면을 탐구할 예정이다.

문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T. 031-783-8156

독립영화의 시작을 응원하는

2019년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공모

01

02

성남문화재단은 우수한 독립영화를 발굴·지원하고, 성남의 영상문화 발전 및 국내 독립영화 제작 환경 확대를 위해 2월 22일까지 〈2019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 작품을 공모한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기초 문화 재단 최초로 2014년부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을 시작, 그동안 우수한 독립영화와 창작자를 발굴·지원하며 독립영화의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그 결과 제작지원작들 중 다수의 작품들이 매년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2019년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은 독립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장편(순제작비 3억 원 이하) 2편과 단편(순제작비 3천만 원 이하) 최대 3편을 지원한다. 지원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작지원 신청서와 제작계획서, 제작비 예산내역서,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를 온라인 접수하고, 이후 성남미디어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문화재단은 4월 초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4월 중순 지원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에서 2018년 제작지원작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12월 중에는 마을공동체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역대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작 22편을 공공 상영,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독립영화를 알릴 계획이다.

01
신동석 감독의 〈살아남은 아이〉 촬영 현장

02
신동일 감독의 〈컴, 투게더〉

공고 및 접수 기간 2019년 1월 28일(월)~2월 22일(금)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 접수 → 원본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접수 snmedia@snart.or.kr (제출 후 전화 확인 필수)
원본 접수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플라자 1층 성남미디어센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시 아동지원 후원금 기탁

성남아트센터 후원회(회장 안붕혁)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아 전달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2018년 12월 12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후원회의 밤 – 아름다운 동행〉 수익금 535만 원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성남시 아동지원 후원금으로 지정 기탁을 결정했다.

지난 12월 27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붕혁 회장(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박지향 부회장((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문화재단 박명숙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후원회원분들의 정성이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라며, 늘 성남아트센터와 함께해주시는 후원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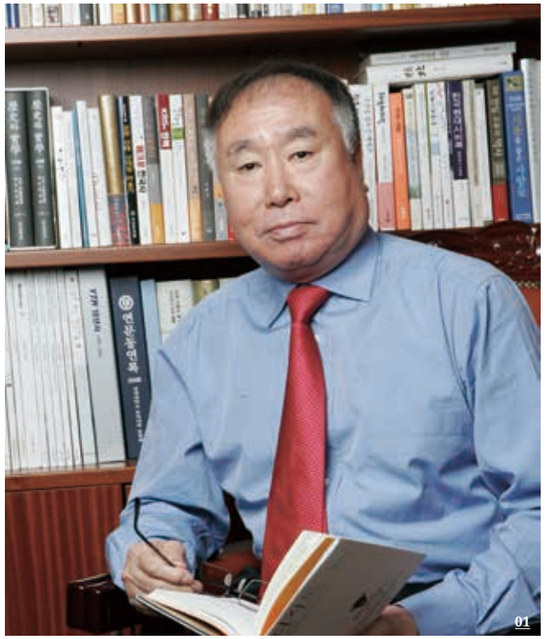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지난 2006년 성남아트센터의 성장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발족해 현재 66명(법인 14개, 개인 5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 2013년 성남아트센터 세계악기 전시관 건립에 2억 원, 악기은행에 1천5백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성남아트센터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성남문화재단 우수 직원의 해외 연수 비용으로 2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01

02

01
(왼쪽부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장 안붕혁, 은수미 성남시장, 후원회 부회장 박지향

02
2018년 12월 12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후원회의 밤〉 행사 중 유엔젤보이스의 공연


01

02

이종덕 후원회원, 한국뮤지컬어워즈 공로상 수상

이종덕 후원회원(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전 성남문화재단 초대~3대 대표이사)이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 공로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14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종덕 회원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장으로 재임하며 국내 창작 뮤지컬계에 헌신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의 창립자이기도 한 이종덕 후원회원은 1963년 문화공보부를 시작으로 서울예술단 이사장, 예술의 전당 사장, (사)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재)KBS교향악단 이사장, 충무아트홀 사장 등을 역임한 국내 문화예술계의 산 증인이다. 현재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겸 석좌교수로 학생들에게 예술행정을 가르치며 문화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01
이종덕 후원회원

02
1월 14일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한국뮤지컬어워즈 시상식 현장에서
이종덕 후원회원이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2019 정기총회 개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2019년도 후원회 정기총회를 3월 22일 개최한다.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안붕혁 후원회장 및 후원회 임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2018년도에 대한 결산 보고 및 신임 후원회장 선출과 2019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atron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최충열/박지향 (주)유엔젤 대표이사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붕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前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서양화가, 프랑스 작가협회회화 분과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분당 마음상담연구소 소장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前 문화체육부 장관
김중헌/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탈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원장 / 문인화가
송 자/탁순희 세이프키즈코리아 대표이사, 前(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오풍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故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이종덕/김영주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 前(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헌주/김윤선 RBS은행 서울지점
장세영/김준식 삼성전자 상무 / GS홈쇼핑 상무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약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상무
조남주/이규칠 미술단체 〈線과 色〉 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분당지역세무사회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허 참/홍애자 前 상아제약 회장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박명숙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서정림 림에이엠시 대표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까치회원
우문식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안붕혁 **부회장** 강효주 박지향
이사 백종훈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개인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치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FEBRUARY

2

오 오페라하우스 | 콘 콘서트홀 | 양 앙상블시어터 | 미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 | C 성남큐브미술관 | B 반달갤러리 | 상 상설전시실 | G 갤러리808 | ※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양 라피네 피아노 듀오 (19:30)	3
4	5	6	7	8	9 오 신유 콘서트 (18:00) 콘 카니발플루트 오케스트라 (18:00)	10 양 환경뮤지컬 〈마루의 파란 하늘〉 (11:00, 14:00, 18:00)
11	12	13 양 성남시립국악단 '천원의 행복릴레이' (10:30)	14	15 양 성남시립합창단 기획공연 (11:00)	16 오 엠씨더맥스 콘서트 (16:00) 콘 코리아솔로이츠 오케스트라 초청 라이징 콘서트 (17:00) 양 경기영재 콤플렉스트라 (19:30)	17 콘 판교청소년오케스트라 (19:00) 양 오르페오 앙상블과 떠나는 음악여행 (17:00)
18	19	20	21	22 양 ※ 연극만원 〈진실×거짓〉 (16:00)	23 오 캐빈, 엘리쇼 (11:00, 14:00, 16:30) 콘 바움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양 ※ 연극만원 〈진실×거짓〉 (14:00, 17:00)	24 오 캐빈, 엘리쇼 (11:00, 14:00, 16:30) 양 ※ 연극만원 〈진실×거짓〉 (14:00, 17:00)
25	26	27 양 카리테스 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28 콘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19:30) 양 권마리, 신애라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19:30)			

※ 공연·전시 일정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일정 (2~3월)

전시명	전시 기간	장소	비고
※ 동시대이슈전 〈바디스캔들〉	3월 22일~8월 25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 까지 연장 개관
※ 성남미술은행 소장품전	2월 15일~3월 17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 〈신소장품 2018〉 전	1월 11일~6월 30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MARCH

3

오 오페라하우스 | 콘 콘서트홀 | 양 앙상블시어터 | 미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홀 | C 성남큐브미술관 | B 반달갤러리 | 상 상설전시실 | G 갤러리808 | ※ 기획공연·전시·프로그램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콘 건국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KUphil 정기연주회 (18:00)	2	3
4	5	6	7	8 콘 2019 신춘음악회 (19:30) 양 김삶 & 정상희 바이올린 듀오 (19:30)	9 콘 성인 자이안 OB남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18:00) 양 라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 (19:00)	10
11	12	13 콘 성남시향과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푸치니 갈라 콘서트 (19:30)	14 양 장경환 바이올린 독주회 (19:00)	15	16 콘 아르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8:00) 양 김혜정 & 블루댄스 시어터 (18:00)	17
18	19	20	21 콘 ※ 마티네 콘서트 (11:00)	22 콘 제 160회 정기연주회 -성남시향 (19:30) 양 금정윤 피아노 리사이틀 (20:00)	23 콘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19:00) 양 클래식 여성 트리오 창단연주 (19:30)	24 콘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정기연주회 (19:00)
25	26	27	28	29 양 차소용 & 이정수 듀오 리사이틀 (19:00)	30 오 이승환 콘서트(17:00) 양 김세은 피아노 독주회 (17:00)	31 오 빅 3 콘서트 〈행복한 동행〉 (15:00, 18:00)

※ 공연·전시 일정 및 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갤러리 808 전시 일정 (2~3월)

전시명	전시 기간	장소	비고
신예회 정기전	3월 20일~3월 27일	갤러리 808	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 까지 연장 개관
경기향토작가 초대전	3월 30일~4월 6일	갤러리 808	

2019 시리즈 - 연극滿員

재미있는 연극. 삶이 있는 연극.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김성녀의 감동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

4. 26(금) - 28(일)
금 16시, 20시
토 14시, 17시 일 14시
제작 : 극단미추

리얼 부부공감 블랙코미디

진실 ㅈㅏㅈ

2. 22(금) - 24(일)
금 16시
토·일 14시, 17시
제작 : (주)연극열전

쓰고 싶은 이야기

굳어 버린 심장을 깨우는 댄스 씨어터

9. 20(금) - 21(토)
금 14시, 20시 토 14시
제작 : (재)국립극단

유

3대가 울고 웃는 세대공감 명품 연극

10. 25(금) - 27(일)
금 16시, 20시
토 14시, 17시 일 14시
제작 : 창작공간 스튜디오블루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노래해 본 기억이 있다면

6. 14(금) - 16(일)
금 20시
토·일 14시, 17시
제작 :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어느 독심술사의 좌충우돌 분투기

독심의 술사

12. 13(금) - 15(일)
금 16시, 20시
토·일 14시, 17시
제작 : 극단도마뱀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전석 10,000원

문의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2019 시리즈 - 연극滿員 | 재미있는 연극. 삶이 있는 연극.

아직도 나 사랑해?

진실 ㅈㅏㅈ

당연하지.

2. 22(금) - 24(일) 금16시 토·일 14시, 17시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전석 10,000원 **작** 플로리앙 젤레르 **각색** 옥경선 **연출** 안경모 **관람연령**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출연 배종옥·김정난, 김수현·이도엽, 김진근·이형철, 정수영·양소민 **제작** (주)연극열전

성남문화재단